朝鮮日報 夕刊

蘇聯加入問題圍繞코 聯盟理事會開會
瑞西、亞爾然丁兩國이反對하나 滿場一致承認豫想

【壽府주네브七日發】 第八十一回聯盟理事會는 七日午前十時半부터 베넷슈葡王代表가議長이되야開會되엿다

【주네브七日發聯合】 第八十一回聯盟理事會는 七日午前十時부터 葡王首相베넷슈氏司會下에開會되엿다 今日의主要議題는 蘇聯邦의 聯盟加入問題로 現在의情勢로는 알젠틴、瑞西兩國이公公然히 反對하고잇는데 今後의 折衝如何로는 兩國을 說服하야 滿場一致加入을承認식히기도그리 困難치안타고聯盟側에서는 樂觀하고잇다 十月臨時會될 國際聯盟總會에도 直接投票는될수잇는대로避하고 될수잇는限滿場一致로 할方針이다 聯盟側은이로서 昨秋獨逸脫退로부터 바든打擊을回復하는同時에 이를機緣으로 日本으로 하여곰聯盟復歸를 考慮식힐模樣인듯하다 그러나蘇聯邦의 聯盟加入은 外交上蘇聯邦의地位를非常히 强固케하고 聯盟으로서도 滿東問題에關하야 日本案側의有力한 武器가될으로聯盟은이로서 墜落된威信을 回復코저하는模樣이다

蘇聯加入斡旋에 大國側서大活動
贊成國三分之二로議案提出 大體로는樂觀形勢

【주네브七日發聯合】 새로聯盟에 活氣를띠게할것으로期待되고 잇는蘇聯政府의聯盟加入問題는 드듸여八日午後의聯盟理事會에上程키로되엿는데蘇聯政府는 聯盟加入以外에常任理事國의地位를 要求하고잇슴으로 聯盟事務局及加入을斡旋하는 英、佛、伊三國代表團은어떠케든지 理事會의必要한全會一致를 獲得하고總會에서도形式이라도 全會一致를얻고저大活動中이다 八日委員會에서는蘇聯邦政府의加盟에關한 具體的問題가 討議될으로 벌서부터大國間에서 如左한 具體案을討議하고잇다

一、理事國以下聯盟國에 蘇聯邦政府의 聯盟加入에贊成하는署名을식혀贊成書를作成함

一、贊成國數가 三分之二以上에達하면 蘇聯邦의加盟案을理事會에提出함

右手續에依하면 聯盟의總意를表示하야 理事會는勿論總會에서도 알젠틴等의反對國을 完全히屈服식힐수잇다는것이다

聯盟理事會 第一日可決項目

【주네브七日發聯合】 聯盟理事會第一日은 午前十時에 開會하고 前後十五分으로 次의議項을可決하엿다。

一、事務局私案과理事會議題對策

一、葡王領域에關한 볼리비아빠라과이事件을 總會에 附할事

一、阿片其他麻藥의 取締諸問委員會의報告

次回는 八日午後續行하야 蘇聯의 聯盟加入手續問題를審議하기로되엿다

黃郛氏上海到着

【上海七日發】 蔣介石、汪精衛兩氏와의 會見을맛치고 六日夜廬山으로부터 上海에歸還한 黃郛氏는八日朝有吉公使와會見하고 廬山會議報告를하야 日本側의 諒解를求한後三、四日上海에滯在하다가 北平에赴任할터인데 南京을 經由하야 七日如左히말 記者團에對하야 하엿다

廬山에서는 蔣介石、汪精衛兩氏와 會見하엿는데北中의日中交涉方針은 從來와何等變함이업다 自己와蔣汪兩氏의三人의 意見은全然一致되엿다 北中懸案은이미轉換期로 問題의解決을 期하고東北策의處理도北中安定上 一年半前과 比較하면現實로보아 好轉되엿다 남은通郵問題도 不遠間解決될 確信이잇다 이대로進展하면 自己는北中今後의處理에關하야 前途를樂觀하고잇다 日滿戰爭後도日中關係回復에는 十年을要하로써 余는目下滿洲의 回復에努力하고잇다 蔣介石氏의病은過勞로 今은全然恢復되야 軍政、內政各方面을指揮하고잇다

蘇聯軍一個師 新疆省에潛入?
國民政府는傍觀할뿐

【上海七日發】 蘇聯邦의 同省航空事業의 獨占權을把握 新疆省에對한侵略은 益益積極化하야 同省首腦部와 政權은 ... 하게되엿는데 最近에다시赤軍一個師를新疆에潛入식혀 公公然히侵略을開始하야 各方面에 大衝動을일으키고잇다 이에對하야 國民政府는何等의手段도取치안코 傍觀하고잇다

齋藤、佐藤兩大使 渡滿途中今朝入京

海軍軍縮問題를中心으로漸次多事多難한日本外交의 重責을지고極東에對한新認識으로써 歐米外交界를리드코저 帝政實施後의 滿洲國及極東의 中國實情視察途上에올은 駐米大使齋藤博氏 駐佛大使佐藤尙武氏는 함께今八日午前六時四十五分京城驛着하야 入京하야朝鮮호텔에入하엿다 今夜午後九時十分發列車로 滿洲에赴할豫定이다

佛伊間諸懸案 무氏佛大使와協議
巴里諸新聞報道

【巴里七日發聯合】 七日巴里諸新聞은 「目下羅馬에서 무솔리니首相과 駐伊佛國大使間에 佛伊兩國間의 諸懸案에關하야 協議中으로 海軍問題는아직協定에達치못하엿스나 佛領介니스에移住하는 伊太利人의國籍問題와 亞弗利加에잇서서의佛伊兩國의 國境問題에關하야는 이미事實上의協議가 成立되엿다 바르두外相은 九月中旬頃羅馬를訪問하리라」고報道하엿다

佛伊의提携에 獨逸國民不快

【伯林七日發】 佛伊提携의報道는 獨逸官民에자못不愉快한印象을주어 多少消沈된氣分을보인다 最近數個月間에伊國이獨逸에對하야 二次나取한 이가튼挾擊的態度는 獨逸國民은極히感情을害한模樣이다

關東軍司令官 菱刈大將隱退?
後任은南大將이有力

【東京電話聯合】 關東軍司令官菱刈大將은 今年六十四歲로 明年에는 大將의 停年年限에 達함으로此際 在滿機關의 改革實現을 機會로 人事的으로도 更始一新의 意味를加할 兼後進에 길을讓步키 爲하야 勇退한다는說이 傳한다 그리고 同大將의勇退할時는 後任으로南、渡邊、阿部、荒木의各大將이 後任者로列擧되는대同級의最古參인 南次郞大將이가장有力視된다

海運問題에關한 回訓內容은穩當
代表部直時緊急會議開催 停頓中의日蘭會商

【바다비아七日發聯合】 海運에關한 本省으로부터의回訓은 七日午前에至하야 整頓되엿슴으로 代表는七日早朝부터 長官代表의居室에 緊急會議를開하고 最後的態度에對하야協議에入하얏다 但傳하는바와如한 蘭印代表의提案을 一蹴한 强硬案은아닌모양으로 右回訓에서 會商이決裂될과如한 念慮는絶對로업다 代表部는協議結果 今明日中에 首席代表의非公式會談 又는其他形式으로 折衝을繼續할터이다 回訓內容은 詳細不明하나 蘭印政府의 提案하고잇는 制限全項目에對한交涉方針을 提示한妥協案으로解釋되는데 蘭印政廳의 提議인制限項目은左와如하다

第一項 日本、짜바間의往復航路問題

第二項 蘭領印度를基點으로한 中國航路에잇서서는 蘭印會社의利益을 尊重하고日本으로 基點으로한 航路에잇서서는日本會社의 利益을尊重할것

第三項 日本에서 外領에至하는直通航路

第四項 領內航路에在한K、P、M、社保護問題 本項은 蘭印政廳의計劃하고잇는外領의 自由港을減少할것、商品別陸上港指定問題等을合함

本紙號外發行

八日 長期府議正和殘額全部解除決定으로 號外를發行하엿습니다

米、大罷業惡化! 勞資間武力衝突

【華盛頓七日發】 米國空前의織物大罷業은 果然惡化하야各地에서 勞資의武力衝突이連發하는데組合側은 七日루즈벨트大統領에 對하야「工場主側이州兵을使用하야 罷業團을抑壓하고잇슴으로 大統領은軍隊를出動식혀 罷業團을保護하라」고 要請하엿다 이에對하야陸軍省에서는「大統領이 果然織物罷業地에軍隊를 出動식힐지안흘지는疑問이다」고對答하고잇다 現在罷業狀況은 二十九萬人의勞働者가罷業에參加하고잇다

爭調委員會 積極的으로活動

【華盛頓七日發聯合】 루즈벨트大統領이任命한爭議調停特別委員會는 初會合을開會하고積極的으로調停에努力中이다

人事·集會

▲李瀨雨氏 天安郡天安邑斗井里鄕里自宅에서遭內艱

▲菊池一德氏 (殖銀監事)新任人事次本社來訪

▲山本滋雄氏(滿通副社長)八日午後一時京城飛行場發旅客機로大連出張

八面鋒

◇階級과職業의牆壁을 打破하라、그리고單一的社會를 建設하라고、허둥리가 絶叫。

◇모다兩班이되잔말인가 모다常漢이되잔말인가、자칫하면 절름바리가 안될는지。

◇工場主가州兵을使用하야 罷業團을壓迫하니、大統領은聯邦軍으로써 罷業團을 保護하라고。

◇貧富는不同하나 國民은一體니、大統領으로서는 何厚何薄이 어려울일。

◇海軍豫備會議를압두고 日英米三國이 腹案을만들기에다 各各바분모양。

◇이눈치를채인 佛伊兩國이압질러서 努力均等을 要求키로 意見一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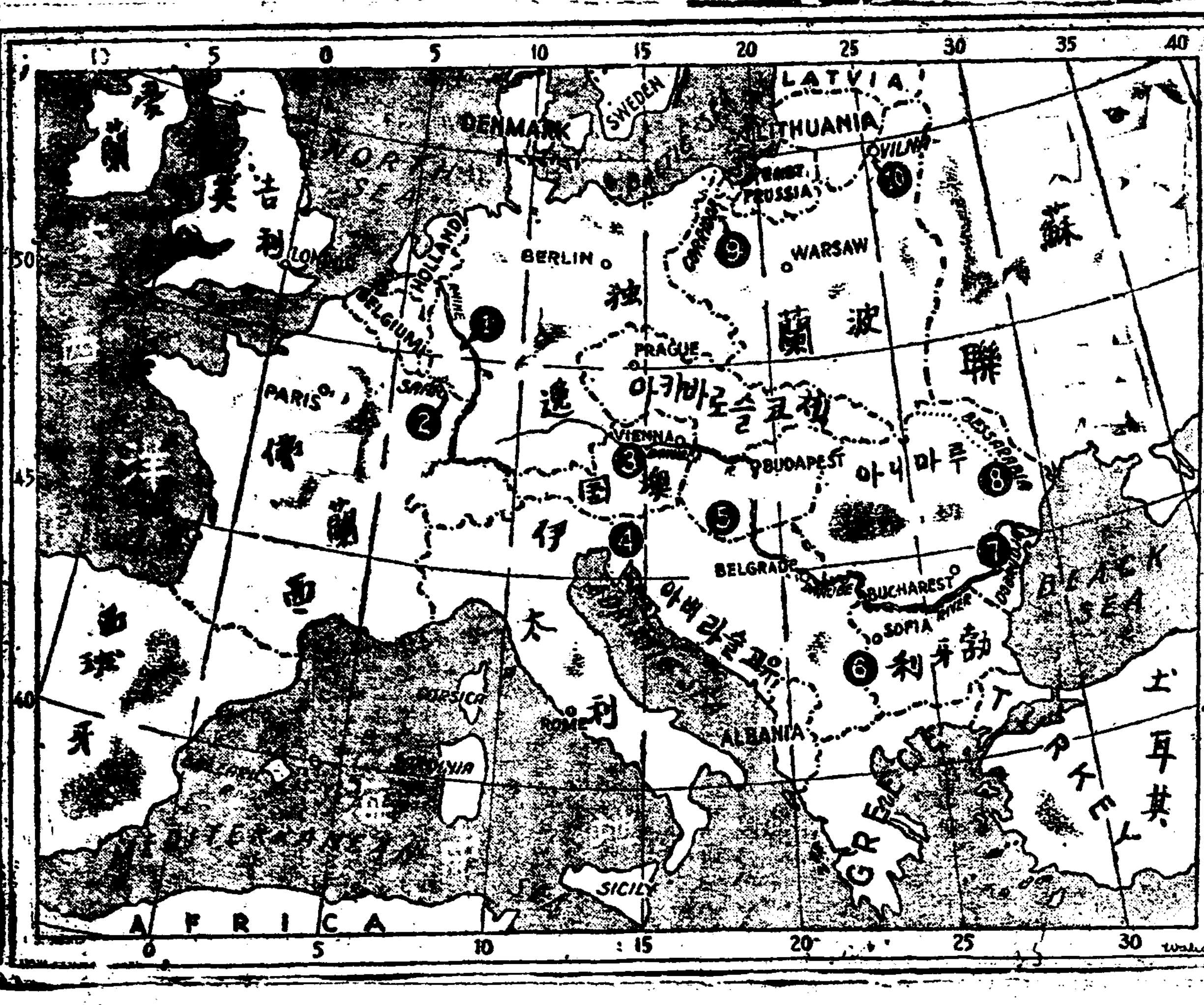
◇軍縮會議의 自縮運動으로는 效果가 잇슬는지。

佛國外相바氏 十七日羅馬訪問

【주네브七日發聯合】 佛外相 바르두氏는 來十七日을期하야 羅馬에行하야 뭇솔리니首相과 重要會談을하기로되엿다

佛外相바르두氏 波蘭外相을慫慂
蘇、聯盟加入承認問題

【주네브七日發聯合】 理事會外相 英國의이든國璽尙書 伊國의아로이지男 葡王의베넷슈外相等歐洲政界의 巨星이全部 주네브에集中하야 東方로카르노協定問題와蘇聯의 聯盟加入案等을圍繞하고 레마湖畔의 政局은俄然活況을띄어왓다 蘇聯邦聯盟加入案對策을압두고 그斡旋役인 佛國의 바르두外相의活躍이特히顯著하야 七日午後反蘇聯聯盟의巨頭인波蘭의 벡크外相과會談하야 極力說得코저 하엿는데 佛波接近을爲하야 長時間에亘하엿다 會談은相當히 妥協을要求하엿스나 兩國의外交關係를 反映하야兩外相이모다熱意업는態度를 取하고 ... 는못한模樣이다 그러나蘇聯政府의聯盟加入에關하는限 波蘭은特別히反對치안는다는旨를 벡크外相은言明한模樣이다



戰爭? 平和? 歐羅巴의十個黑點

(1)라인란드——獨佛係爭地帶 (2)잘——오는正月의人民投票에依하야運命이(獨逸?佛蘭西?)決定될地方 (3)墺太利——中歐의火藥庫 (4)伊太利=유고國境——國境係爭地域 (5)匈牙利——伊太利回收主張 (6)유고=불가리아國境——마케도니아革命黨이도발하는곳 (7)도부루쟈——루마니아와불가리아間의紛爭地帶 (8)뻿사라비아——蘇聯이주엿다고보고잇는 루마니아國의占領地帶 (9)波蘭廻廊地帶——獨波兩國의紛爭地域 (10)빌나——波蘭과리투아니아間의紛爭地帶

軍縮對策案問題

國是로決定된以上 擧國一致支持必要
國內輿論의統一이第一急先務 貴族院側批評要旨

【東京電話聯合】 七日閣議에서決定된 軍縮對策案에對하야 貴族院側의 批評은如左하다

오는軍縮會議에對한 日本의方針이 廟議에서決定된것은 大端깃분일이다 勿論그根本方針에贊成이다 從來軍縮會議는 軍略本位에서만考慮되엿지마는 新軍縮會議에서는 强國이不和를爲하야 協力한다는 崇高한目的과態度로써 臨치안하면 會議를圓滿히進行식힐수업슬것이다 各國內에는各其軍備와財政의調和點을發見하야 適當히善處하라고主張하는政治家와 모든것을犧牲하야 國防을充實히하라고主張하는사람들이 各其內面的으로 阻隔될念慮가잇슬것이다 그러나國是가이미決定된以上 批評을避하고擧國一致國論을統一하야 會議에臨할것이다 日本의公正妥當한主張은 반다시諒解를어들것으로생각된다

軍事參議官會議 軍縮對策案承認

【東京電話聯合】 日本軍縮方針은 七日閣議에서決定하엿슴으로 大角海相은 七日午後六時半부터 海相官邸에서 伏見軍令部總長宮殿下를비롯하야 加藤寬治大將、山本英輔大將、小林躋造大將、野村吉三郞大將、中村良三大將等의各軍事參議官及大角海相、長谷川次官、吉田軍務局長等出席下에大角海相으로부터 七日閣議에서決定한

一、日本軍備制限에對한 根本方針

一、華府條約廢棄通告에關한件

一、來十月倫敦에서 開催될海軍軍備制限豫備會議에臨할訓令內容

等을 詳細說明報告한데對하야 滿場一致로서이를 承認한後各軍事參議官으로부터 政府의軍縮方針은 專혀防禦的武器에置重하야 各國의負擔을輕減한다는主旨인즉 何國에서도首肯할수잇는公正妥當한方針이다 끗까지그主張貫徹에邁進할것이다

政府方針을 全海軍에示達

【東京電話聯合】 大角海相은 七日閣議에서 海軍側主張대로 日本政府의 豫備會商對策及華府條約廢棄를今年中에 通告키로決定하엿슴으로 同日午後軍事參議官會議를開催한後報告諒解를求하는同時에 末次聯合、高橋第二、村田第三、百武第四의 各司令長官、永野橫須賀、藤田吳、米內佐世保의 各鎭守府司令長官 小林駐滿海軍部司令官 其他 要港部司令官 各學校長을 通하야 部內에示達하야全海軍一致로 日本의方針貫徹에 適進하자는 訓電을發하엿다

第一妥當또公正 決定된軍縮對策

【東京電話聯合】 日本政府의 豫備會商에 提出할軍縮對案內容은極秘에附하고잇는데 日本政府와華府條約을 廢棄하면第十九條의 太平洋防備制限協定도當然廢棄될運命에잇다 萬若來年의 本會議가決裂될境遇一九三七年으로부터 太平洋上의要塞及海軍根據地의 現狀維持約定도撤廢되야 于先米國은

(가) 아라스카及파나마運河地帶의沿岸에近接한 島嶼아류산諸島

(나) 布哇諸島의 防備施設의 增大 前進根據地의擴充을할것은旣定의事實로보임으로 日本政府로서는 이에對應할수잇는 最少限度의保有權을要求하야 攻擊的武器의廢止乃至는徹底的縮減을 確立하야 世界平和에貢獻코저하는 意圖를가지고잇다 日本政府의要求가 決定된主力艦의 總噸數限度를 華府及倫敦條約에서 버서남이아닌今 各國도不公道異議할수업는 公正妥當한大乘的提案이라고 海軍當局에서는確信하고잇다

大阪市立衛生試驗所前技師·山口博士創製

イスシロン

肺結核

호흡알데히드의偉力

結核治療藥은過去여러가지名稱으로臨床醫家에提供되얏스나그主成分은殆히구레오소-드又는其誘導體로서治療效果업서、結核治療界에서는至今까지絶望의狀態이엿다 イブシロン은山口博士가多年苦心硏究의結果發見된治肺劑로서從來의結核藥으로는根本부터그主成分을달리한 イブシロン의主成分은千倍稀釋으로도거이모든細菌을殺滅할수잇는호흡알데히드로서胃腸中의認定한바의호흡알데히드로서胃腸中에서分解안되며아무副作用을일으키지안코 病竈部에일으러비로소分解하야强烈한殺菌力을發見함과同時에一面肝臟實質及酵母蛋白分解酶의 存在로保護、榮養目的을達한가장進步的治肺劑다。

斯界之權威五十餘博士實驗推奬 全國官公私立大病院御採用

適應症 肺結核、肺浸潤、肺炎加答兒、慢性氣管支加答兒、濕性並乾性肋膜炎、結核性腹膜炎、脊椎가리에스、骨及關節結核、痔瘻、肺門部淋巴腺結核、瘰癧、其他結核性諸疾患

錠劑		粉末	
100錠	￥2·50	50瓦	￥2·75
230錠	￥5·00	115瓦	￥5·50
500錠	￥10·00	250瓦	￥11·00
		病院用500瓦	￥20·00

一日六錠乃至九錠 投藥도可 全國藥店에잇슴

文獻請求하는분에 山口博士著 結核療養法 無代進呈

本冊子는山口博士가詳細히講述한貴重療養書다。 또右冊子에 許多한患者로直接體驗記에준眞正한批判「服用者の聲」을附記함

臨床大家實驗推奬 全國有名藥店에잇음

伊藤由商店 大阪市東區 (振替大阪一三九三一) 東京田邊元三郞商店 (振替東京一六六三)

京都帝國大學·後藤博士創製

スパーシコン

喘息·喉頭結核·扁桃腺炎·一般呼吸器疾患

價	格
100瓦	￥0.25
300瓦	￥0.60
600瓦	￥1.00
1.500瓦	￥2.00
病院德用	廿瓩

二倍數 倍吸入約含嗽 하야稀釋使用할도可함

世界的創始 吸入及含嗽劑의 專賣特許에對하야

感冒 肺炎 百日咳

吸入及含嗽劑의主劑도칼륨의卓効잇슴은 學界公知의事實이다。 그러나從來의藥劑는基礎的硏究缺乏、化學的操作이幼稚함으로칼륨濃厚水溶液으로못하고따라서效果도期待키어렵고더욱家庭常備藥으로는너무도治療費高價等의缺陷이잇다。

本劑는後藤博士가幾多苦心硏究를싸어創製하야더욱絶對로他劑의追隨를不許한特徵은從來許多한專門家가難事라한世界文獻中의最高樟腦、水溶解量을훨신超越한驚異할만한數倍濃厚의純粹樟腦水溶液完成으로서이에强力深達性殺菌力을가진약구리진系色素並其他貴重藥劑의藥理作用을具備하고殺菌、祛痰、鎭咳、强心、消炎、鎭痛等諸作用을가장短時間에優秀하게表現한卓効의吸入及含嗽劑로써帝國政府의專賣特許를엇고또稀釋用濃厚原液으로治療費至廉合理的家庭常備藥이다。

아스다―

파부병에

懸賞當選發表

醫者應藥社아스다-懸賞에對하야去八月二十一日에大阪朝日、大阪每日兩新聞社立會下에抽籤한結果左記諸氏가當選

壹等 自轉車又는카메라 五名

貳等 萬年筆 壹百名

三等當籤者는賞品到着으로通知하지않음

丹平商會

威信失墜掩蔽코저 醜政報告書修正決議

旅費徒食한府議弱點타서 府議들을箝制策動

府政肅淸趨向

그동안 보고서 초안 체택 문제를 노코 여러날 회합을 거듭하는사이 어용파(御用派)와 숙청파(肅淸派)의 대립을보여 은근한본귀를겨듬하든 경성부회 상임위원회는 칠일밤까지에 보고서원안은 넘우비겁을솔직하게 적발하야서 못쓰겟스니 경성부의위신을위하야미온적(微溫的)으로수정하자는 의론으로 겨우결정하고다시 소위원(小委員)을 선정하야 보고서를 수정식히기로하고산회하얏다 이에따라 립시부회는 이마본보가보도 한바와가티오는삼오입 전후가될 모양이다

오는팔시부회에서는 물론공표될보고서가 골자(骨子)는 사실이나 이미그동안경성부의 비정은 소문으로모다세상에 알려여 진터로벌서부터여론이 분분하야 부회의파란은 면치못하겟스므로 부간부급에서는이때의 부회원 경제책(經濟策)을강구중인데 뜻바게도부회원중 홍순한협의를 밧는사람이잇서 부당국자로하야금 조흔「챤스」를 잡게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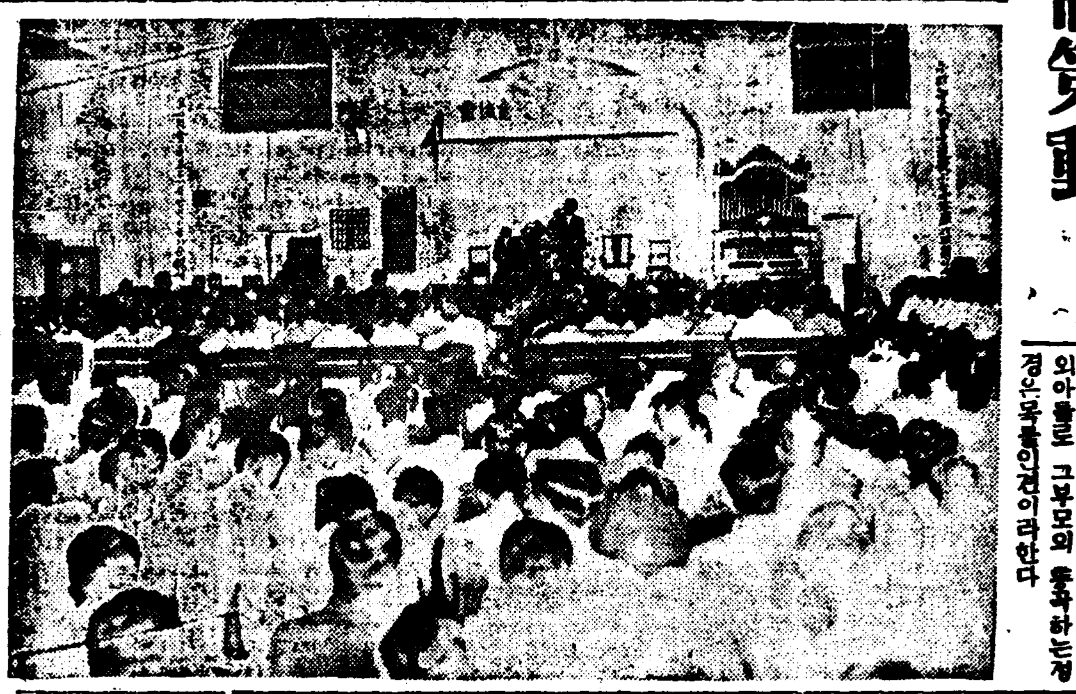
즉경성부에서는 도시시찰려행(都市視察旅行)이란것을부회원들에게 해마다 번가라가며식히는데 금번에는 모모로회(老朽)한부회원이 지난팔월상순에 전귀려행을간다고 핑계하야려비 이백오십원식을 바다가지고 동경대판등지를 갓다온다 칭탁하고 실상은 어느시골에가서두러누엇다가와서 려비만밧고 말엇다는것을 보경서를통하야 부간부들이알고 이것을조사하야 그약점을 잡어가지고 부회를견제코저한다는데 문제의려비를 바다먹은 모모부회원은 방금경성부당국자에게 량해운동을 하는라고 매일분주중이라 한다

傍聽까지千餘名 莊嚴裡總會開幕

七日夜平壤西門外禮拜堂서 第卄三回長老會總會

【平壤】 선교오십년기념(宣敎五十年記念)을 마지하야 무거운력사적의를 띄고 긔독교향도(鄕都)평양에서 열니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제이십삼회총회는 지난칠일 오후팔시 평양서문밧 례배당에서 이백명 총회원과 천여명 방청객의참집으로 륭량한주악으로 장엄히개회되엇다 폐에와한 찬송 긔도 성경랑독 독창 합창대의찬송등이잇슨후 총회장 장홍범(張弘範)씨의「인생의구원은 피(血)」라는 의미심장한 개회설교(開會說敎)가잇고 나고 여여회원점명등하순서 재정위원의 절차보고에들어가 평양성도제직회(都諸職會)잇일오후사시 초대연과조선일보사의 십일일오후륙시 초대연등밧기로 가결한후 금번총회를운전할 임원을 투표로아래와가티 선거하고 동십일시반휴회하엿다

▲會長 李仁植 ▲副會長 金聖鐸 ▲書記 洪澤麒 ▲副書記 郭錦根 ▲會錄書記 羅時山 ▲同副書記 朴仁寬 ▲會計 高漢奎 ▲副會計 李春燮



(사진은장로회 제이십삼회총회개회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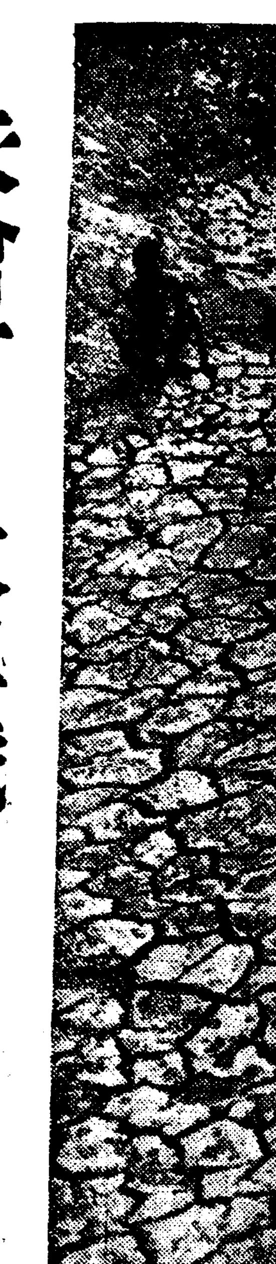
宣敎五十週年 歷史展覽會

◇節制會도開催豫定

조선예수교장로회선교오십주년 력사전람회(歷史展覽會)조선그리독교절제운동회 전람회는 오는 구월십일 오후네시부터 동십이일 오후륙시까지 평양부경창리(景昌里)마포리엽관에서총회회변축하회 위원회와 조선그리독교절제운동회(節制運動會) 주최로개최되는데 조선그리독교에 대한력사적 산유물과 절제운동에 관한진품은 일반에게 만흔감흥을주리라한다

未曾有의大旱魃로 餓死自殺二百萬

玄武湖太湖底에枯草蓬蓬 南中國一帶의大飢饉



【上海發】 지난 여름에잇서서 중국대륙을휩쓰른 수십년래 처음보는 대한발은 삼련전의대홍수로 말미암아 래기근으로창눈이 상이지지안흔 남중국일대에 도다시큰기근을 당면하게되여 가을의추수기를 당하고보니 그피해정도는 예상보다도 더욱심각하야 최근국민정부의 조사에따르면 직접피해액만 십억원이상이요 리재농민들로서 굶어죽은자 또는자살한자만 이미이백만명이 넘는참담한 현상이라고한다 금번재해의심상함은 상해는 륙십수년만에 처음보는 혹서로 최고온도 백사도를보이여 유월이래 이개월동안십사성(省)삼백사십삼현(縣)중국전토의 삼분일에 해당한광대한 지역의 논밧은 전부구열이나서 채소면화 등속도전부 말은현상으로강서(江西)호남(湖南)호북(湖北) 안휘(安徽) 강소(江蘇) 산서(山西)섬서(陝西) 귀주(貴州)복건(福建) 사천(四川) 하남(河南) 산동(山東)등중 에서는 가장비옥한지방 전부가 이전에못몰피해지로 정확한조사에 의하면 호북성의 리재농민만일천만명 전토의리재민은 일억명을돌파할예상이라고한다

장강(長江)이남으로 대소운하(運河)크리등은 전부말려 강소절강등지의 삼수확예상은예년의 십분일도 못될현상이요 쌀갑은 폭등에폭등을거듭하야 평년단경기(端境期)의 약이배나 되여 기민들의 부호습격이 빈빈하야 벌서백수십건에달하는현상이다 이와함께 절강, 강소등 일망무제한 옥야는 한점푸른곳차즐수업시 황량한고야(枯野)로 변했고 송대(宋代)이래로물이말러본적이업는 현무호(玄武湖)는 송두리채로말러 호수바닥에난 풀드른부터는 내쓰호(湖)물도점점말러드러가 호수미까지 전부말럿고양한대호(大湖)가치도 태고의성벽이 드러낫다고큰소동이다

(커트는하발로말라버린진 태호바닥)

每日千百名冥府行

昨年中死亡者四十萬千餘名 死亡率은平北이首位

총독부에서 조사한 작년중의사망수는 사십만일천삼백이십이인으로 그중조선인은 삼십구만이천륙백십팔인 일본내지인은 팔천삼백오십구인 외국인은 이백구십오인이다 그리고 하로평균 일천일백인으로 사망률은 인구천명에 대하야 십구『콤마』삼십이다 이것을 전년에비하야보면 실수에잇서 오만륙천일백구십륙 비률에 잇서 이『콤마』구십일의 감소이다 소화칠년의 일본내지사망률 십칠『콤마』칠십삼에 비하면 조선인은 일『콤마』오십칠이놉다 사망률을과왕십년간에 대하야보면 최고는소화사년의 인구천명에 대하야 이십삼『콤마』팔십칠이오 최저는소화오년의 십팔『콤마』팔십오로 평균이십일『콤마』이십이다

다시사망률을 도별로보면 최고는평북의인구천에대하야이십륙『콤마』구십이고 최저는 경북의 이십삼『콤마』십강원도의 이십『콤마』팔십일함남의이십이『콤마』륙십이 평남의이십이『콤마』사십칠등이 그다음이다 또사망자의 성별(性別)를보면사망자총수 사십만일천삼백이십이인 중남자는 이십일만오천 구십인 녀자는십팔만륙천이백삼십이인으로 여자백에대하야 남자는일백십오『콤마』오이다

五歲未滿이最高

消化器原因이第一

十五歲、十九歲間이最低率 眼疾、齒痛原因이最少

사망하는 괴절을보면 삼월에가장만코 이월팔월과 사월등은그다음으로 만타 가장적은것은십일월로십월십이월과구월동안은비교적 적다 즉사망은봄과여름에만코 가을과 겨울에는적다또사망자의 년령을보면 오세미만의 어린아히의사망이 전체의삼할팔분오리를 차지하야 가장만코오세로부터 구세까지는 급격히감소하야 륙분이리 십세로부터 십사세까지는 다시저하하야 삼분일리 십오세로부터 십구세까지는 각년령급을 통하야가장 적어삼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십세로부터 이십사세는다시 증가하야 삼분칠리이나 이십오세로부터 삼십구세 까지는각년령급을 통하야 별로심한 고저는업시 모다사분에 달치못하나 사십세를넘으면 다시사분이상으로 증가하야 팔십세이상이되면 이년령급에속하는 인구자체가 적기때문에 당연히감소하엿다 다시사망의 원인을보면 소화기병이 가장만히 일할구분칠리를 차지하고 신경계통병의 일할칠분오리 호흡기병의 일할일분팔리 전염성병(性病)의칠분칠리로서의륙분사리등이 순차이다 순환기병 생식기병(生殖器病)전신병(全身病)피부(皮膚)병은 이분이상이며 눈(眼)과 그부속기병귀(耳)병 나병(癩病)등은 모다일리여에 불과하다

丁茶山記念講演 今夜基督靑年會館서

신조선사(新朝鮮社)주최정다산(丁茶山)긔념강연은 예정과가티 금일(팔일)밤 일곱시반부터시내 기독청년회관에서 개최하게되엿는데 연제와 연사는다음과갓고 장내정리비로 십전을밧게되엿다한다

茶山先生과朝鮮學 延禧敎授 鄭寅普

朝鮮史上丁茶山의地位 安在鴻

내가본茶山先生 朝鮮日報編輯顧問 文一平

李朝儒學과茶山先生 中央高普校長 玄相允

遷安同胞殺害事件 嚴重한交涉開始

調査에따라六名殺害가確實 證據湮滅痕跡發覺

【天津八日發聯合】 천안현복산사(遷安縣福山寺)에서조선동포여섯명이 희살당한사건은 그뒤천진영세관영내(影內)서기생 일행이 조사를한결과 동지의촌민이 조선동포여섯명을 희살한것이 확실하게되엇다 그리하야 복산사촌민 팔백여명은사건이 중대화할것을 두려워하야 거의 전부 도망을 하엿고 중국측의 관헌들도 가진수단을다하야 증거소멸에 애쓴흔적이완연히 남어잇다 영내서기생일행은 확실한 증인외에 움직일수업는 적확한 증거를 어덧슴으로문제는 당연이 중대화할터인데전승령사는 이상의보고에 의하야외무성의 청훈을기다려성주석(省主席)에게 엄중한교섭을개시할터이다

西洋生菓子 本町 金剛山 電本 二四五 곳 配達합니다

孫龍來氏特志

【開城】 개성지정(開城府池町)구십일번지이호 손룡래(孫龍來)군은 의류십오점을본사개성지국으로가지고와서삼남리재동포에게보내여달라고간곡히부탁하엿다한다

天氣豫報 曇小雨模樣

七三八미리의 優勢한颱風은 沖繩의 北西海上에잇서北北東으로進行하는中이다 黃海北部에도 弱한低氣壓은「오ー츠크」海에서 東北方으로퍼지고北中國도 氣壓이좀놉다 南朝鮮은雨其他는흐릴것이다 明日은흐리고 小雨가잇스나그후에는 漸漸天氣가조와지리라

氣溫 昨日最高 二六、九 昨日最低 一九、四 今日正午 二三、三

女子商業校生 丹誠어린救濟金

十三圓五十錢을寄託

시내관훈동(寬勳洞)에잇는녀자상업학교(女子商業學校)생도일동도 구월일일 개학때부터삼남수해 구제금을 모으기 시작하야 륙일에 생도대표로오막세(吳莫世)김용련(金容蓮)박익조(朴益祚)고희영(高熙英)의네학생이 모으든 십삼원오십전을 가지고 본사로차저와서 전달하고도라갓다

安國幼稚園兒 五圓卅錢募捐

아직 철이나지아니한 아기네도 삼남수재에 관심을가저 단체적으로 흑은개인으로 동정금을본사에 기탁한다함은 누차보도하얏거니와 시내안국동(安國洞)에 잇는 안국유치원(安國幼稚園)의 어린아기네도 현금오원삼십전을 모아서 륙일에본사로보내엿다

(사진 우는 안국도유치원 아래는의연금 가저온녀상생도)

누풀보고오든 農夫一名溺死

【榮州】 오일아츰녀섯시경에경북영주군 풍기면교촌동(豊基面校村洞)일백오십사번지에 거주하는 리동출(李東出)(元)은 논물을보고 도라오다가 때마츰내려밀리는 급류와함께 상리나려 영주군영주면영주리천교(榮州郡榮州面榮州里川橋)밋에서 시체를발견하엿다는데 권괴리통들은 칠십로부모의 외아들로 그부모의 통곡하는정경은목불인견이라한다

被害는續續判明

西水羅서는船舶卅七隻流失 咸北暴風雨被害續報

【警務局着電】 귀보ー항무일 대의 폭풍우피해에대하야 칠일 오후네시까지에 판명된것은 다음과갓다

一、명천(明川)서관내에팔명의 승조어선한척이 전복하야 그중한명은 구조하엿스나 남은칠명은 행방불명으로 목하수사중이다

二、명천서 청진(淸津)서 서수라(西水羅)서관내의 어선피해는 발동긔선한척 범선삼구척 소선(小船)삼칠척 합계삼십칠척인데 이외에 류실된것이 십칠척이잇다

三、청진서관내에서 출어(出漁)중의 어선륙척 승조원삼십명은 아즉 귀환하지아니하엿스나 피난중인것으로 관측된다

四、회령(會寧)서관내의회령과 신계림(新鷄林)간의 철도는 회령천(川)과포을천(浦乙川)의증수로 불통중이다 포을천철교서쪽 제방이약삼십척「메틀」이류실하야 륙일부터탈차가불통하야 이복구에는이삼일간을요한다고한다

첫가을씨즌劈頭 今日의各種大會

京城運動場筆頭、各競技場 水上、柔道、拳鬪、野球

「스포ー츠·씨ー즌」으로서의 가을은왓다 이때의 빗나는활약을목표로단련된 건아들의 젊은의긔! 각종스포ー츠는 가을을위하야 준비한것처럼모든 스포ー츠는이제부터 전개된다 스포ー츠날씨로 좃차비든 금팔일에는 시내각처에서 사오종의 경긔가 일제히 개막되엿스니 흥분된두에새로만든 경성풀에는 전조선 중등대항및 일반수상(水上)경긔대회가 열리엇고 종로청년회관에서는 전조선중등학교 유도(柔道)대회의 장쾌한 막이열리엇다 그밧게도조권(朝拳)주최홍백권투(拳鬪)시합、추긔실업야구(野球)련맹전、정구(庭球)리ー그전등이 제각기 자긔네들의펜들을 모아노코 감격과흥분의소용도리를이루고잇다

中等校柔道大會

鍾路靑年會서開幕 東京留學生武道會主催

中等柔道界의覇權을 決하는 CA 朝鮮硏武館、東亞日報後援의 東京留學生武道會主催와 YM 第六回全朝鮮中等學校柔道大會는 八日午後一時廿分부터 鍾路靑年會館講堂에서 莊嚴한 開會式을 열리엇다 會長呂運亨氏의開會辭와 主催側으로부터 繼在從氏의 人事가잇슨後 昨年度優勝校中東學校의 優勝旗返還式과 選手一同을代表하야 中東主將金啓述君의 宣誓文朗讀으로入場式을마치고 中東對徽新의對戰으로 滿場觀衆熱狂裡에 競技는開始되엿다

◇第一回戰 【中東】勝 【徽新】敗

△鍾庚隴…비김…柳根榮△

○韓聖律……金相夏×

○李止崇……朴濟亨×

○梁熹植……白完鉉×

○金啓述……柳志玉×

【寫眞】 柔道戰新事와昨年度優勝校中東과의 對戰인지라 山校應援團應援도緊張한 가운데開戰되여 徽新의先鋒을 掛하야 無勝負로마치엇슬뿐으로 中東의壓倒的優勢로 快勝하엿다 (○勝 ×敗)

京城풀의壯觀

中等一般水上大會 今日正午一齊開幕

水上競技의壯擧! 朝鮮體育會 朝鮮水上競技協會共同主催의第

五回全朝鮮中等校對抗 及一般水上競技大會는 八日正午……의 첫가을부드러운햇볏아래 訓練院頭京城풀(五十米長水路)의 고요한水面을 차이르키고始作되엿다 定刻이되여參加한七十餘勇士의入場式은 尹致昊氏의 開會辭、昨年優勝校京城第二高普팀의優勝旗返還、選手代表李熙鎬(二高)君의宣誓文朗讀、石孝恆氏의 審判에對한注意로서 마치고 中等部三百米「메드레ー」決勝으로부터 競技는開幕한바 力泳또力泳! 一路新記錄을目標로 空前의緊張속에서 競技는進行되엿다 (풀의콘디슌은水溫廿五度)

中等校部

◇三百米메드레ー릴레 ▲1第二高普팀(吳振泰、邊用斌、李熙鎬) 四分十八秒 ▲2中東學校팀 ▲3普成高普팀 ▲4崇實 ▲5中東學校팀 徽文高普팀(秋成求、崔鎔武、李明燮)

【得點】 ▲二高十四點、▲徽文十點、普成八點▲崇實六點▲中東四點

◇平泳四百米豫選【A組】 1金始榮(培材)七分十八秒 2崔鎔武(徽文) 3李海誠(二高)

●本科夜(一、二學年)各五十名 ●專修科夜(商業科) 若干名 生徒募集 京城中等公民學校 九月新學期開始 規則要郵券二錢 京城太平通大漢門前入

가을옷감新到着 九鼎商會 絹織布木店 地方代金引換願康 京城鍾路二丁目 電話光二一三番

大歷史悲劇의音響化… 端宗哀史從日譚 天才劇作家朴英鎬氏自作自演 東方史譚의金字塔 三相六臣의血淚錄 再生藝術의 極致篇 태평레코ー드

雜貨都賣商及行商의福音!

營業目錄 梳 大昌洋行月梳工場 京城太平通二丁目一九 振替京城八〇五五番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檢定染料取扱店 染料 原料 信用 卸商 本位 大壯洋行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市場入口側) 電話本局三四一七番 振替京城一二〇六八番

京城鍾路二丁目 完全 時計修理 普信堂時計舖

巡査看守(講義錄)夜學도開始 京城永樂町 朝鮮警務學會

新學期開始 簿記學生徒募集(講義錄) 京城府永樂町 第一高等簿記學會

藥旅及洋燈時期 德 덕 京城光熙町二丁目 德昌兄弟硝子工場 電話本局二八一九 振替京城一二七二六 商報請求次第進呈

學藝와家庭

오늘의말슴
제복의처녀와 조선의가정

어느가정이나 웬만한가정에서는자녀를 학교에보냅니다 그래서어느집을가든지제복의처녀(制服의處女)들이만습니다 다 이것은진실로우리들의깃븐일입니다 그러나 녀학생은 구두를신고 줄다름질치고 책상머리에서 글만배호는것만이제복의처녀의할일이아니올시다

◇

물한그릇을마시려도 늙은어머니까지심부름을식키고 집사람이 몸이아퍼도 부억에 세간들을다루고 애를쓰는때 안방에 편히안저서 번드시누어 콧노래만하는것이 제복의처녀의할일이 아닙니다 집에 도라오면 손을부르긋고 나서야할것입니다 조선의음식도 손수개량해야하고 조선의옷도 손수고처야하고 동생들을 족하들을가리켜야하고 뜰도깨끗이 수채구녁도 깨끗이 헛간도 깨끗이해야할것입니다 만약이런치안흔녀성은장래에 타락된녀성이될것입니다 아모쪼록에도쓰지못할녀성이되고말것입니다 공부만한다고그것이무슨 그리장한일이오닛가 공부를잘해서조흔인물이되여야 장한사람입니다 또는 학교를졸업하는그날에장한사람이 되는것이아닙니다 배호기 시작할때부터 장한사람이되여나아가야 할것입니다

◇

몸을바르고 효도를하고 놀때업시 도라다니는 녀자는 언제나 가정을 버릴녀자입니다 마음이들뜨기시작하면 늙어도 마음이들떠서 죽을것입니다 가정을모르는녀자— 집안사람을도읍지안는녀자— 제몸하나를감당치못하는녀자는 일즉이학교를그만두는것이좃습니다 그런녀자는 배와서조차안흔것에 쓰기쉬웁으로 부모되는이는 공부하는딸이라고 어—해며바치면큰탈입니다 제복의처녀여! 가정을 잇치말라 (S記者)

初秋隨筆
氣候哲學
—燈下雜記— (二)
金晋燮

衣食住는 두말할것도업시人間生活의 三大要素가되는者이다. 그리하야 사람이 이三者를풀니할수업는限에잇서서 사람은 가난하면가난한대로 녀녀하면녀녀한대로 또弱하면弱한대로 强하면强한대로

四時로變化하는季節과

에 恒常適應하여가지아니하면아니된다. 참으로 여긔가을이도다시왓다는것은 흔히吾人에잇서 決코例事의일이아닌것이며 여긔長霖이 그첫다는것은 決코平凡한事實이아닌것이다. 새로운暴君은 새로운方式으로서 이제萬象을 支配할터인까닭이다. 그리하야 이사이한잔마시는물에서도 우리는가을의莊嚴을맛보지안흘수업다. 換節에換衣를實行하여야할것임은勿論이오집업는사람은 이때

겨울의추위를來日가티

늣기고 寢褥房舍問題의뒤를따르는 憂愁를深刻하게 體驗치아니하면아니된다. 사람이文明속에살수잇다는것은 얼마나安易한일인지모르나 이제도오히려우리를 女王의勢力을 가지고支配하고잇는者는 文明이라기보다는 차라리自然이다. 이와가튼 決코가볍지안은 感銘은누구에서도 發見할수잇는일이나, 氣候의 人間生活에對한束縛은 特히換節期에만 限하야잇는것이아니고 우리는氣候의影響을밧음이업시는 살수업다하여도過言이아닐만치 그것은우리의日常生活에 密接하게交涉되여 偶然이들떠날사이가업는것이다. 그럼으로일즉이『괴ー테』는『氣候에支配되기쉬운肉體에만 우리의精神은服從하여서는아니된다!

나는氣溫이나질때보다

氣溫이올를때 일하기가容易하다. 나는이러한作用을알고잇슴으로 氣溫이나즐때는 보담큰努力에依해 不利한條件을克服토록비하하야써成功한다』고말한일이잇다. 이것은勿論一例를古典에求하얏슴에不過할뿐모든사람이各其嗜好를서로다른溫度에求할수잇다. 假令요새와가튼新凉이 讀書에好適한 時期로서萬人에依하야 推奬되며 利用되는것은두말할것업시 그不爽不快, 藝術家도

爽快한氣溫이天下를싸

고도는까닭일것이다。世上에는 흔이보는일이지만 假令暴風雨가이러난다든지氣候에 變調가잇슬때에는 肉體의苦痛을通하야이를豫知하는氣候에 敏感한사람들도잇다。諸君도勿論 비가오고 바람이불기前에는반다시머리가압픈病을 世稱바람머리라하는것을 알고 잇슬것이다 이點에잇서서사람이 氣候에 敏感하다는것은 그가幸福한狀態에 잇지안는것을 意味한다. 地理的으로 氣候의 支配를强烈히밧는 民族과가티肉體的으로 氣候의變化에 크게掣肘되는사람들이란 確實히不運하다하지안을수업다. 同一한天候도 그作用하는바 사람의健康에依하야서로달타。一의天候가 或者에게는그의感官神經을刺戟하고 或者에게는睡因症을니르키며

或者에게는沈鬱을가저

오는等잠으로 區區한무엇을가지는것이다. 이리하야 여름과겨울, 봄과가을, 어느節期가조흐냐는問題가튼것이 흔이사람들사이에愼重한論爭의題目이되기까지한다. 그러나그것은結局서로다른健康과自己主張이다大體로多情多感한사람, 藝術家的氣質의사람이 氣候에反響키쉬운은 녀녀히斟酌할수잇는바이지만우리는어린아이가, 이미젓먹이아이가벌서 暴風雨가부려때리는밤가튼때 突然히다른탈도업시 자지도안으며 먹지도안코울고불고하는

困難한情景에直面하야

氣候政治의남김업는暴虐에 괴로운밤을새우는境遇도가지는것이다。氣候에잇서서 學童들의學業成績이不調低下하는것은이제하나의남은事實에不過하다。獨逸의醫學者 『하이린히·마ー만』은 氣壓의變化가消化器에밋치우는特異한影響을 觀察하야이에 成功하엿다고한다。登山家들을 不意에襲擊하는所謂山岳病에잇서서는腦이 激烈한疼痛을니르키는것임은 사람이다알고잇는바이지만 이는참으로 氣候의變化가 主因을짓는것이다。히말라야

探險隊의數만흔參加者

는 實로이때문에橫死한것이다 食慾不進, 胃弱, 吐瀉, 泄瀉等우리와交分이엿지안은이러한病疾이 晴雨計의激落한低下에依하야惹起됨은 吾人의常時經驗하는바가아닌가? 엇더한境遇에우리가氣候에對하야 말하는機會를가지는以上엔 우리는적어도氣候가가지고다니는듯보이는못病을 無視하여서는아니되는事實, 이곳空氣가適하냐, 不適하냐는것은 恒常우리의重大한關心事가되는까닭이다。

……南方은 아즉도 녀름……

『죠이쓰』와 愛蘭文學
떠·에스·미ー든스키ー (6)
白石 譯

『폴로베ー르』에잇서서도(略) 鬪爭으로오는壓迫을堪耐할수업는高尙하고敏感한사람, 卽『藝術과詩』에敵對하는時代에生存하는藝術家의 個人的

敗北 과個人的 生存鬪爭의表現은잇섯다。『죠이쓰』에잇서서의 그와가튼傾向은 그根源을 地方主義的, 非文化的商人地主的인愛蘭의『풀로베ー르派』의 土壤속에잇섯다。그러나그의圓熟된時期에잇서서, 이것은變하얏스니 解憊한 敎養으로는 洗練된 (略)生物學的敗北을 表現하야 完璧의境에이르럿다。이러케하야 小뿌르쥬아智識階級人의 無敎養한뿌르쥬아지에 對한反抗에서

萌生 한特徵은, 다른歷史的環境에서 이時代의全世界的資本家의 文化에共通되는特徵이되엿다。

『죠이쓰』의 이러한 愛蘭的『밀류』로부터 歐洲大陸的『밀류』에로의 變向은 그의私生活의關係에서 밝히 그解明을차즐수잇다。愛蘭을떠나 歐洲大陸을 流浪하든그는 나종에얼마동안 『트리에스테』에머물어살엇다。이곳서 그는 百萬長者요, 또『트리에스테』에서가장큰 두汽船會社의 支配人인『스밋즈』와親交를맷게되든뒤로그는『스밋즈』가『偉大한作家』인것을

發見 하고, 『스밋즈』에게愼重한態度로 文學에精進하기를 勸說하엿다。『이탈로、쓰뷔보』(이탈로、오스트리안) 이란匿名으로 制作되『스밋즈』의極端的心理派小說들은 크게세상의 關心을 끌엇고 (特別히伊太利바게서—『퐈씨스트』들은이런·女性的 優雅 味를輕蔑하기때문에) 그리하야 그는 『伊太利의푸루스트』라는評名을엇기에 이르럿다。『율리씨즈』가 세상에나온때이것을가장몬저 鑑賞한사람의하나는

亦是 百萬長者인 作家요『뷔쉬(註、佛蘭西鑛泉)』의 所有者의하나요 有名한小說『아、오、빠ー나뿌ー드』의 著者인『발레리·라ー뽀ー』엿다。『라ー뽀ー』는『죠이쓰』의 忠實한支持者가되엿고 그리하야 저秀逸한 『율리씨즈』의 佛譯은그에게서되엿다。『죠이쓰』에게發見된 『스밋즈』、『죠이쓰』를發見한 『라ー뽀ー』, 이두 高尙한 百萬長者인 嚴正主義를 품은 『죠이쓰』의 世界的뿌르쥬아지의 文學에의『貢獻』을 들보아준사람들이다。이때에『죠이쓰』는 巴里에서作하고잇슬때엿다。

大戰 때에는『트리에스테』에잇섯고、이리로부터 그는『쥬ー리히』로가고다시 巴里로옴겻다。이러는동안 그는『율리씨즈』의制作을 노게인햇다。그리하야 一千九百二十一年에 이것을 脫稿하고 一千九百二十二年에는그出版을보앗다。

이제여기서『율리씨즈』의『스토리』를 論評할必要는업스나 그『스타일』만은 論評할만하다。音樂의形體를 빌어말한다면、『율리씨즈』는 여러가지로

相異 한調으로 씨어젓다。말하자면、이런 調들이『스토리』에새로운 範圍와 새로운價値를 주는것이다。內容만아니다、『스타일』까지라도、每章이 各各다르다。

新語를 創造하고、在來語를改造하는데잇서서나 또 그의『스타일』의 多樣性과 技巧에 잇서서나、『죠이쓰』를 짤올사람은업다。著名한 言語改造者라고해도暴言는著者의 一般的目的을 保有하려고、一貫한 調和를가지고 改造에當하는것이다。例하면『밀튼』은 그不自然한라텐化한語彙를 文藝復興과革命과의 保爭으로부터成長한 새로운뿌르쥬아 이데올로기의 한

部分 으로써 制作한것이다。또『마야코브스키』는 그의革命詩를단는데、古典主義로는完全히離脫한 言語로써하엿다『고ー골』과『쉑ー스피ー어』까지도、言語를改變하는데는、두셋의密接하게關聯된『레지스터』가잇섯고 그리하야이것을 되푸리 되푸리하여써온것이다。

漢詩
碧梧山人 考選

三角山
選外佳作 二
[illegible] 尹順普

三峯俯瞰漢陽京·
五百年間覇業成·
龍盤虎踞眞難畵·
瑞靄祥雲尙未晴·
到今指點嗟何及·
空自崔嵬氣不平·
桑田碧海望無際·
古堞斜陽惹恨生·

漢詩募集
詩題 仲秋月
押 城聲明晴生
限 陽九月十日

가정의학
림파선염의치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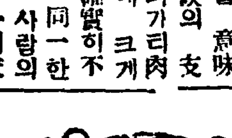
문 이십이세의 미혼자로륙칠년전부터 철봉과 력발운동을심히해왓습니다。그런데 량국부와 량쪽겨드랑과 발굽능에 콩만한알이 다수히생기어서 점점압호며 조운동을 과히 해도 열이 나는것가트며 림파선알이 압흡니다 어떤의생에게 보인즉 살박산주사를하라고합니다 업새는방법을아르켜주시압소서(參禮愛讀生)

답 운동을하얏다고 여러곳림파선이붓고 열이나는일은업슬것입니다。만성림파선염이면 결핵성과 매독성을 생각할수잇습니다。결핵성이라면ㅡㅡ드켄치료나 수술도 업샐수잇스며 매독성이라면 살발산주사를하면 잘낫습니다。

당신의병이어느것인지잘알수업거니와 위선혈액검사를하야보십시오 매독에는유전매독도 잇스니가 아즉미혼이라든지 품행이방정하얏다고 매독을부인할수는 업슴니다

륙칠년이나경과된 림파선염이 각금 열이나고 동통이잇다는것은 좀이상합니다 다른병이잇슬지도 모르니 진찰을밧으시는것이 가장안전하겟습니다 (大學病院小川外科 金晟鎭)

對米關係五十年史
報聘使節과兩國親善
(48) ……湖岩



大統領謁見式

=閔= 大使一行은 一八八三年九月十五日에 華盛頓에到着하야 美政府의 國賓으로『아링톤』호텔(Arlington Hotel)에 留宿하게되엿고 當日로 國務卿代理(그때大統領과國務卿은不在함으로)『떠비스』(Davis)氏를 往訪하엿다 그런데 米國政府側에서는 閔大使의 陪從으로 日淸韓語에 好奇心을 가진靑年海軍士官『쪽ー』(George C. Foulk)氏를選定하엿는바 그는 일즉美國亞細亞艦隊에服務하야 四年동안에 두번巡航하엿고 이때는

=米= 國海軍圖書館에勤務하고잇더니 閔大使의 陪從이 됨에밋처서는 大使를 따라서 華盛頓으로부터 美國東部의 各都市를 遊覽하엿스며 閔大使가 歸國할때는 駐韓米國公使館附士官으로 任命되어大使와 함께 朝鮮에 와섯고 그後에 代理公使까지 되엇다 上遞과가티 大統領과 國務卿이臨時로 紐育에 가서滯在함으로 『떠비스』國務卿代理等의引導로 閔大使는 紐育에 가서 第廿一代大統領『아ー터ー』(Chester A. Arthur)에게 國書를奉呈하게 그奉呈式은 擧行한場所는

=紐= 育市 二十三街에잇는 第五『아비뉴』호텔(Fifth Avenue Hotel) 이엇섯는데 九月十八日? 午前十一時頃에 大統領은 모닝禮服을입고 『호텔』大廳中央에 正立하엿스며 그 右便에는 『프릴링하이슨』(Frederick T. Frelinghuysen)國務卿이 侍立하엿고 그左側에는 『떠비스』國務卿代理가 侍立하엿고 그他 大官과海軍士官들이·國立하엿스며 그中에는 『쪽ー』도 섞겨잇섯다 이러케 서서 기다릴 즈음에 朝鮮使節一行은 閔泳翊을 先頭로하고 列을 지여 드러왓다 閔泳翊의 입은

=朝= 官服은 아주 갑가는것인바 紫色비단의 長襴한外衣의 벙으러진 사이로 白零가티하한 바지가 보이며 黃金으로 奇異하게 아르삭인 넘적한腰帶를 띄엿고 胸背에는 자鶴과 또여러가지 紋章한 비조로 가장자리를 선두른 布帽를 부처더라 그리고 또그의머리에는 비단과 대와 말총으로 맨든紗帽를 써섯는데(朝鮮禮俗에는 公式의 境遇에반드시 쓰는것) 그次에 서잇는 副使洪英植의 입은 朝官服은 閔使의것과 大體로 가트나 胸背에 鶴노흔 繡이 단한마리인 事實로서 그地位가閔보다 나즌것을 表示하엿다 또그다음에

=徐= 光範의 입은옷은 單純히 흰바지와 자두빗官服과紗帽를 섯더라 그뒤에는 『로웰』이 夜會服으로 드러와서섯고 그나음에 金吉濬은 靑緣色(淸袍?)을 입엇고·邊燧는黑色(團領?)을 입엇고 高永喆은 靑色(團領?)을 입엇더라 使節一行은 大統領을 向하야一列로 섯다 大使의指示로그들은 함께 무릅을 꿀고 손을 머리위로 들고 이마가땅에 닷도록 徐徐히 압흐로굽혓다 이와가튼敬禮로 二三分동안을 머무른後 이러나서 房으로 터려갓다。이때大統領과大官들은 使節에게 向하야머리를 깁히 숙여서 인사하엿다 禮畢에 國務卿이 압흐로나와 閔使를

=引= 導하야 大統領에게 紹介하매 兩者가서로 握手하고 잠시 얼골을熟視한後譯官을通하야 彼此에 멧마듸人事를 밧구엇다 그次에 洪英植과밋그他一行을 國務卿이大統領에게 마찬가지로 紹介하엿고 거기잇든 米國側의大官들도 또한朝鮮使節에게 紹介시켯다。(西洋禮俗에는 나즌 사람을놉흔사람에게 먼저紹介함 譯者註)(上述한大統領謁見式의當日光景은 一八八三年九月十九日付의 紐育헤랄드新聞에 揭載되것)

世界名優女巡禮
伊太利悲劇女優
엘레오노라·듀제
六十五歲로 最後舞臺
(5)……咸大勳

듀ー제는 이와가치 營利本位의 興行師들이 要求하는舞臺進出에는 餘地업시 拒絶햇다 그러나 듀ー제는 那終에는 하는수가업시 드듸어

六十이

란 高齡에다시舞臺에 오르게되엇다 그것이바로 一九二一年 듀ー린의발보座에서 演한바다의夫人이엿다 그러나 十二年間의 듀ー제의 演技에比하면 天壤의差로 떠려젓다。그러나 듀ー제는 失望하지안엇다 그리고 劇團을組織하엿다、그리고서 이곳저곳으로上演費用을救해보앗다 그러다가 伊太利政府에對해이것을말햇다、그러나 그劇團에對하야政府는補助를 주지안코 듀ー제에게對하야서

一種의 名譽給與로 얼마式을 내인다고하엿스나 그分擔이 너무도 僅少하얏스므로 그것을밧지안엇다、그리하야 一英國夫人의 義俠心으로一九二三年 倫敦興行을 떠나게되엿다、倫敦으로가서는 크다란成功을하엿다、그리하여이成功은 마츰내 米國의 招請을 밧게되엿다 듀ー제가 米國의 招請에承認하게되기는勿論 돈만엇자는것이안이엇다 大戰以後 沈滯된 歐洲를떠나서비다저편의自由를 求함이엇다 그리해서 一九二三年가을 듀ー제는 維也納에서 歐洲最後의公演을끗마치고 九月에쉐르불港口로부터 뉴ー욕으로떠낫나

米國에 잇서서 듀ー제는 뉴ー욕 필라델피아等거집大都市를 巡廻興行하엿다 그러치만 이가티 高齡으로 더구나 女子몸으로 過勞한結果듀ー제는 健康을 害하얏다터구나 喘息때문에 치위를만날가해서 桑港에온때는 거집거리를떠나지안으려고 하다다 그만 無理하게 汽車로떠나게되엿다 아리조나地 지날때에는 늘그地方이 그러하엿지만적은모래와몬지가 窓으로날려드러와서 듀ー제의氣管을餘地업이 압으게하엿다 드듸여듀ー제는

流行性 感冒에 걸리엇다 그리하여 피츠바ー크에왓슬때는그것이 肺炎으로 變하엿다 이肺炎은우리의 花形女優듀ー제를 一九二四年四月二十一日밤歐羅巴에서 멀리떠러진 펜실바ー니아의 一都會호텔一室에서 六十五歲를一期로永遠히 不歸의客이되엿다 듀ー제의 죽은屍體는 배에다실고 뉴ー욕떠낫나 그배가 떠날내에 뉴ー욕에잇는伊太利사람들은 모ー두埠頭에나와서 모자를벗고 멀리 屍體가되여 母國으로도라가는한女優의死體로爲해서祈禱를올렷다

死體는 伊太利 政府意思에反하야 그가 가장사랑하든隱棲의場所이든 아소로에조그마한 무덤을 만들려노핫나墓地에는 몬헤·크라파의花崗石우에 그의이름을새이고 그아레에는 生年月日과 죽은年月日을새이엇다 墓地는 東便아소로의언덕에 실버들이 가볍게 흔들리는바람소리와 고요이이바람을타고오는 저녁종소리만이들리는靜寞한곳이엇다 이제 끗으로 이女優의特徵을보면 듀ー제는 化粧을하지안엇다 그얼골을 無恨히 蒼白하엿다 그 터구나 그

蒼白한 얼골에는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보드라운人情과 變化만은 表情과 또無恨한 情炎을감초것이 늙은때까지 남어잇섯다 그리고 그외손은 말할수업시힘고 고왓다한다 그리고또 그의목소리는 보드랍고 敎養잇는女子의소리엿다고한다

명랑한 얼굴들 당신들은 명랑하신수가 어떠케 잇슴닛가

獅子는 즘생의王일께
猛獸사냥의所感 ⑬
英國狩獵家 『포ー란』

사자는누구한테지나

누구나 무인지경에서 맹수를맛나게될때 그즘생이어떠케굴가 하는것을 예측할사람은업습니다。그러기에큰사냥이라는것이 재미잇는 노름인것도이런예측할수업는、확실성이업는노름이란탓입니다。사냥에는언제나 늘 뜻아니한일이 일어나는것입니다。캐캐묵은일이란업고 언제나 새로이배울만한신긔한일이 일어나는것입니다

이제생각해보면 여러가지족류의개개의즘생의 역습해동이이것을말하는 사람에따라달은것은、각기 즘생의종류에대해서 의견을말하는 그사람들이경쟁심에서 각기의견을엄청나게 달리하는데 원인이잇는것입니다。누구나 량심잇는사냥군이면 이런문제에대해서 제주장만 제주장이라는 태도는가지지안흘것입니다。

사자가 사람에게 무섭고위험하다는데는 세가지큰 리유가잇다는것은 사실도 일반이알고잇습니다。첫재로 부상을당하든가 다시터피할수업는술떼기가튼데로 쫏기어늘어가든가할때、둘재로 암사자가 새기를다리고잇슬때、셋재로 사람의고기가 다른즘생의고기보다 맛잇는줄을알고 그고기를탐나할때—— 이세가지경우입니다。

극도로 배가곱흔 사자는그자신이 한번들입니다。그래도사람을 해하기보다는 가축을해하는것이 습관입니다。밥금무엇을 먹지안호면 굶어죽을지경에 일은 사자는 악어나기린 가튼것을 습격하는것입니다。그뿐아니라 륙지에올은하마(河馬)를 몰래 달겨들어습격하기도 합니다。이런 사실은 어떠타고 비난할수업는권위(權威)들의증명하는바입니다。사자는 또버팔로(野牛)와도 싸움을하는경우가 잇는데나는 요행이、언제한번 이두즘생이 맛부터 죽기까지 싸움을 하는것을 몰래숨어본일이 잇습니다。이런 싸움에는사자가 반듯이 이기는편이되지는 못합니다。사자와버팔로(野牛) 사이의 싸움에서나시자와 하마(河馬)의싸움에서형세를리한 편는언제나 사자입니다。

나는 아직 사자가 코끼리나 일각서와 싸움햇다는것을듯지도못하고 또책에서 보지도 못햇습니다。그런싸움이잇섯다고는 생각되지안습니다。그런데 범은 코끼리를습격하기조와하나 사자는 그러치안습니다。

번덕스러운사자

세상에즘생치고 그것을사냥하다가 한번이 실망하결과만을 거두고 로력만허되게하는것은 표범입니다。세상에는이즘생에게 한번도 총을노으려노아보지못한 사람들이 만습니다。어떤사람들은『켄야』땅에상륙하야 한두주일동안에 만흔사자를 사냥한사람들이잇습니다。이것은 큰복이라고 하겟습니다。『쓰레스』와『셀로우스』두대좌는 일천구백년에 한배로『켄야』에 왓습니다『셀로우』라는사람은 『쏘틱』과『모우』땅에서 석달동안 사자사냥을 하엿섯는데 보기는만히하면서도 한마리도쏘지는못햇습니다。그리고그한매당의다른군들은 다들 사자를잡어죽이엇고 어떤사람하나는 그가상식히 암사자한마리에게인사물성으로 상처를바덧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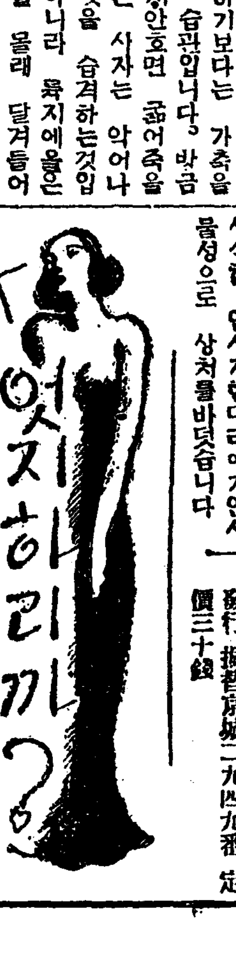
총이일업다

세상에는 오늘날 까지라도『아푸리카』대륙이라하면 어떤사람이지나간곳에라도 그곳을 려행하면 큰위험이나잇는듯이 말하는사람들이잇스나실상입이지 나는『아푸리카』에서 아니간곳업시 다내발로걸어다녓고 또 자동차로 돌아보앗는데 나중 생각하여도 좋아안에는 나는 한번도 총을가지고단녀본적이업습니다。총에시도 녀녀하엿든까닭입니다。대체로 맹수라고 지적할만무서워하는것인데 그 까닭은즘생들을 사람은 별별 째며이즘생들에게 사람을해하고야말려는 성미가 잇는듯이라고생각되여잇습니다。

新刊紹介

▲三千里 九月號(主要內容)民族興亡과戰爭 現代基督敎의特質 日本의對露戰備 離婚告白書 내가본巴里 外國文學座談會 金基鎭論 尹白南과그藝術 創作數篇 大同江 京城府鍾路二丁目 三千里社 發行 振替京城一九四九番 定價三十錢

엇지하리까



부정한약혼녀 엇지처리할까

문 생은 모 관청에서 봉급 생활을 하고잇는 금년이십륙세의 청년이온데 거년십월에 엇던처녀와 약혼한지 몰파사개월만에 그의부정한 과실을확실이 알어내엿스나 이제해약할수도업고 그러라고관대한마음으로 나를지극히위하는 그녀자를용서하고 지내자니 가슴의파도는 끗칠새가업습니다만약해소한다면그는죽업의길을것거나그러치안으면불행한처지에빠지겟스나더욱번민이 생깁니다 마음세은 다시업시착합니다 그러나 교양이 업서서 그것도 한가지걱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정으로말하면지금어머니를 모시고잇고동생을 동경류학을 식이고잇는데 그것을 모다 내손으로버려멉니다 내가 한번실수를한다면 늙은어머니와 어린동생이참혹한처지에 빠질것을 생각만해도 눈물이압흘가립니다 다만 선생님의하교만 고대하고잇습니다 (K生)

과실의동긔를 알고처리하오

답 그녀자에게대한 애착이심하면 심할수록 당신의가슴의『파도』는더놉하질것이니 당신은 지금마치 사랑스러운 새새기를품에안고『이새를 노아버릴까? 그러치안으면 영원이가슴에 안어줄까』하고 망서리는 사람과가터 매우초조히 가슴을태우고 잇슬줄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교적 단순하게 처결할수 잇지안흘까생각됩니다

웨그러냐하면 문제는정조(貞操)관념에잇는데 그여자가당신과약혼하기전에 한갓실수(무지가원인이되는때도잇겟지요)로빙해한것이라면당신과가튼경우즉약혼상대자가 픽조타면 그것으로파혼할필요는 업다고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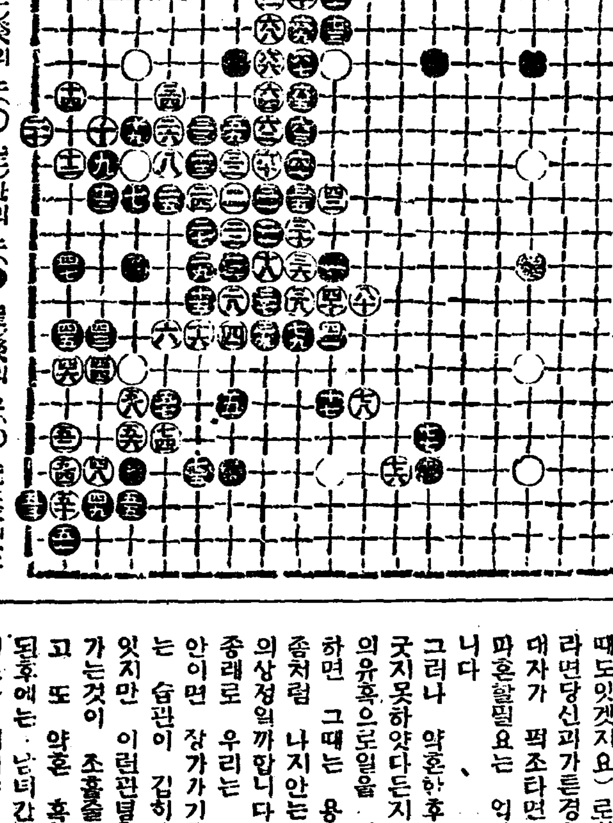
그러나 약혼한후에 의지가굿지못하얏다든지 혹은기타의유혹으로일을 저즐럿다고하면 그때는 용서할용기가좀처럼 나지안는것이 사람의상정일까합니다

종래로 우리는 소위처녀가안이면 장가가기를 끄려하는 습관이 깁히뿌리늘박고잇지만 이런관념은 개량해가는것이 조흘줄암니다 그리고 또 약혼 혹은 부부가된후에는 남녀간에 절대로정조를 직혀야 할것입니다

그럼으로 범행한시기와 그동긔를 잘조사하야 최후에결정을 지으시되 잘생각하야 일단결정한후에는 다시의사를 후회하거나 번폐해는 안됩니다 그러기위하야는 먼저 원술신중히 생각해야할것이 안이겟습니까 본이 생각하십시요

(一記者)

◇本社主催◇
國手選拔 圍碁對局譜 (八)
略符=(□百△·二百·◎三百)
白 丁奎春
黑 柳鎭河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子丑寅卯辰巳午未申

(●)癸의二 (○)丑의二 (●)癸의三 (○)辰의五 (●)卯의六 (○)辛의六 (●)庚의五 (○)壬의十四 (●)先手의十二 (○)壬의十一 (●)壬의十四

◇死點 (●)未의六

◇李敬文氏評日=巳의十五 白模內가 安定치못함으로 白이 辰의十五로 引出하니 黑이 卯의十六으로 應하는지라 白不暇餘暇에 辛의十六으로 挾著하야 突十六 將馬를 援助하고 黑은 子의十二로 中央白을 牽制하나 局勢가 爲衡으로 分定할 此際에 아즉 危險은 업슴

三南水害義捐金品

現金累計 二萬九千八百七十圓九十五錢
物品累計 七萬五千七百九十七點

櫻井金鑛第二事務所從業員一同 (通川郡鶴一面小城谷)

一金三十二圓六十錢

內譯 十圓 櫻井金鑛第二事務所 三圓 張應漸 二圓 池斗星 二圓 崔京俊 二圓 崔昌瑞 一圓 李月星 一圓 李道俊 一圓 韓日慶 一圓 金駟暸 一圓 李明植 一圓 金致會

一圓 元龍洙 一圓 金龍甲 一圓 玄永淳 一圓 李昇洙 五十錢 吳允鍾 五十錢 李龍雲 五十錢 金春逢 五十錢 金俊典 五十錢 玄應天 三十錢 姜俊弼 三十錢 金在弼 金瓘

桃花幼稚園園兒一同

一金四圓

內譯 五錢 陳貞任 五錢 金聖鎭 十錢 李玉姬 十錢 金炅洙 十錢 洪鎭泰 十錢 姜正漢 十錢 洪賢洙 十錢 林貴完 二十錢 元英中 五十錢 金聖煥 五錢 金大植 十錢 金在堯 十錢 金貞淑 十錢 金炅禹 十錢 姜後童

十錢 尹鍚晳 十錢 金炳準 二十五錢 李基貞 十錢 權泰潤 十錢 金戊華 五十錢 金琦星 五錢 張昌鉉 五錢 金正連 十錢 李德煥 十錢 金石然 十錢 黃辰圭 十錢 金奇男 十錢 金文姬 十錢 張鉆福 十錢 金炫圭 二十錢 鄭範朝

郡山町在留朝鮮人一同 (奈良縣生駒郡郡山町西岡八一)

一金八圓九十六錢

內譯 一圓 梁在完 五十錢 梁世煥 五十錢 金益萬 五十錢 曺永達 五十錢 朴日光 五十錢 宋賢燮 三十錢 姜守仁 三十錢 林桂業 三十錢 金鎭玉 三十錢 金益法 三十錢 權瓚祚 二十五錢 韓鍾大 二十錢 李晶雨 二十錢 李欣雨 二十錢 李根道 二十錢 金景祚 二十錢 裵出伊

二十錢 金喜道 二十錢 河基祐 二十錢 崔鶴卿 二十錢 崔鳳五 十五錢 李南秀 十錢 李敬雨 十錢 小川修司 十錢 姜富億 十錢 朴斗成 十錢 金泰煥 十錢 權弘基 十錢 黃述用 十錢 柳再祐 十錢 崔且乭 十錢 崔孝奉 十錢 李永完 六錢 金仁坤 五錢 金守辰 五錢 姜俊伊

本社江界支局經由分(第三回)

一金一百六十六圓四十一錢

江界留學生會主催南鮮水害救濟의劇과音樂의밤總收入金二百三十圓四十五錢中各費用三十七圓四錢控除

內譯 十圓 韓仲信 五圓 李鉉亭 三圓 金允煥 五圓十錢 平安自動車商會 十圓 江界電氣株式會社 三圓 光鮮洋行店員一同 二圓 滿鐵工業所

二圓 沈洪碩 二圓 安藤商店 二圓 金承洙 二圓 趙銀珠 二圓 李允炳 二圓 張飛燕 二圓 スミス工場 三圓 金基河 二圓 劉相禹 二圓 常春舘 二圓 李台

一圓五十錢 回生堂藥房 四圓 國境寫眞舘 一圓 金元模 一圓 田時恒 一圓 金龍宗 一圓 洪才述 一圓 富士屋 一圓 崔雅柔 一圓 우리商店 一圓 康順彈 一圓 金夢益 一圓 金泰銀 一圓 金永鎰 一圓 車錫雲 一圓 高泰翊 一圓 李福鉉 一圓 金元澤 一圓 金鍾雄 一圓三十錢 金莘鉉 一圓 田虎英 一圓 姜承雲 一圓 丸永運送部 一圓 泰平旅舘 一圓 菊地醫院 一圓 李聖國 一圓 江界精米所 一圓 崔明禮 一圓 金萬衡 一圓 金仁壽 一圓 金石函 一圓 大同洋靴店 一圓 金基淵 一圓 中央理髮舘 一圓 平壤堂 一圓 東一理髮舘 一圓 金若鉉 一圓 金允益 一圓 李悌錫 一圓 金官泳 五十錢 李元行 五十錢 姜綠珠 五十錢 金小娥 五十錢 文承福 六十錢 金鶴姬 六十錢 成德洙 五十錢 金庚憲 五十錢 金翊泰 六十錢 鄭鍾煥 五十錢 田鳳娥 一圓 不思議屋洋服店 一圓 李鍾茂 六十錢 張汝八 六十錢 白鳳基 一圓五十錢 金宗興 九十錢 金咏松 九十錢 朴春道 六十錢 平屋時計店 六十錢 金應龜 六十錢 姜炳淳 六十錢 三盛商會 六十錢 安錫憲 六十錢 朴元植 六十錢 香雲理髮舘 六十錢 吳陳亨 六十錢 李宗希 六十錢 尹金岑 六十錢 金長壽 六十錢 金龍甲 六十錢 張元植 六十錢 龍岡屋 六十錢 金有健 六十錢 金鳳韶

六十錢 崔德星 六十錢 朴東植 六十錢 桂益杓 二圓十錢 崔君鎭 一圓五十錢 石州洋服店 九十錢 朴仁球 九十錢 玉孝燦 九十錢 徐赫俊 五十錢 李雲珪 五十錢 桂聖煥 六十錢 金履浹 五十錢 金敬敏 五十錢 崔鳳一 五十錢 禹炳浩 五十錢 金明燮 五十錢 崔承龍 三十錢 朴竹鳳 三十錢 白姮愛 三十錢 崔虎益 三十錢 韓炳喆 三十錢 李錦善 三十錢 金鳳梧 三十錢 張正國 三十錢 金洛壎 三十錢 朴景淑 三十錢 梁金女 三十錢 金應用 三十錢 金起鴻 三十錢 姜連默 三十錢 李應奎 三十錢 李玉男 三十錢 李基壎 三十錢 金炳俊 三十錢 金鎰河 三十錢 權國賢 三十錢 眞殿シヅ 三十錢 金順熙 三十錢 金亭順 三十錢 田興均 三十錢 韓晟初 三十錢 鄭玉女 三十錢 崔濟龍 三十錢 金永順 三十錢 李昌國 三十錢 崔信道 三十錢 金河琢 三十錢 康德勳 三十錢 金德淳 三十錢 金致元 三十錢 金春涉 三十錢 金喆寬 三十錢 安承洛 三十錢 黃喆石 三十錢 金鳳淑 三十錢 金枇松 三十錢 李昌壎 三十錢 李昌石 三十錢 田順明 三十錢 吳鳳鉉 三十錢 康尙奎 三十錢 李成俊 三十錢 金鳳鍍 三十錢 趙英林 三十錢 田熙闢 三十錢 朱尙珉 三十錢 趙廣燁 三十錢 金澤淵 三十錢 金正淳 三十錢 金信浩 三十錢 金萬得 三十錢 韓定濂 三十錢 智貴女

三十錢 崔永奎 三十錢 金炳珏 三十錢 金仁碧 三十錢 田子何 三十錢 康相賢 三十錢 金龍成 三十錢 姜宏喆 三十錢 梁龍女 三十錢 金鳳鉉 三十錢 金雲益 三十錢 金建洪 三十錢 朴花得 三十錢 林日彬 三十錢 高泰均 三十錢 石州旅舘 三十錢 姜承雲 三十錢 黃日涉 三十錢 金宣基 三十錢 桂允植 三十錢 田鳳基 三十錢 韓三女 三十錢 申自吉 三十錢 裵希用 三十錢 申永宣 三十錢 田克熙 三十錢 朝日菓子店 三十錢 林容成 三十錢 金孝安 三十錢 金成吉 三十錢 金㴴均 三十錢 朴希秀 三十錢 中山 三十錢 金昌壽 三十錢 石仁尙 三十錢 趙承福 三十錢 金元興 三十錢 金成浩 三十錢 高泰郁 三十錢 趙鶤鵡 三十錢 田致禾 三十錢 昭和商店 三十錢 尹道鉉 三十錢 金㶓旭 三十錢 崔德奎 三十錢 田錫亭 三十錢 成一德 三十錢 金潤官 三十錢 李永成 三十錢 金泰順 三十錢 金永吉 三十錢 李鏌燦 三十錢 朴奎榮 三十錢 李允燮 三十錢 金榮淑 三十錢 姜炳柱 三十錢 金宗元 三十錢 金昌周 三十錢 金義濟 三十錢 康河蟾 三十錢 宋日弘 三十錢 朴仲彬 三十錢 金翊埴 三十錢 明道錫 三十錢 和信商店 三十錢 申利澈 三十錢 朴昇虎 三十錢 金善鳳 三十錢 劉麟秀 三十錢 李銀桃 三十錢 李景律 三十錢 金泰濟 三十錢 宋明燮 三十錢 金應喆 三十錢 梁章烈 三十錢 金二順 三十錢 張公珠 三十錢 白氏 三十錢 金連河 三十錢 金鎣權 三十錢 康壽吉 三十錢 趙承益 三十錢 泰和堂

三十錢 許玉 三十錢 車均玉 三十錢 朱福男 三十錢 金勝泌 三十錢 金字熙 三十錢 朴承貞 三十錢 李曰永 三十錢 朱㵢子 三十錢 金鳳女 三十錢 林明浩 三十錢 方昌宣 三十錢 康東明 三十錢 崔公集 三十錢 李成燁 三十錢 金明愛 三十錢 田袋達 三十錢 姜明宣 三十錢 金圭鏞 三十錢 金雲玉 三十錢 金潤容 三十錢 布甚作 三十錢 張日亨 三十錢 山口喜久次 三十錢 崔東玫 三十錢 尹鳳壎 三十錢 金應喆 三十錢 韓雲松

三十錢 金志賢 三十錢 韓弼濟 三十錢 金世然 三十錢 金來洙 三十錢 尹炳雲 三十錢 尹德淳 三十錢 元利貞 三十錢 陳野尙 三十錢 金鳳鍊 三十錢 林道順 三十錢 金善河 三十錢 朴希秀 三十錢 尹鳳汝 三十錢 朴弼華 二十錢 金球煥 二十錢 梁龍學 十錢 姜恩受 十錢 高夢德 十錢 李東九 十錢 朴大聖 十錢 金相浩 十錢 李京洙 十錢 張德元 六圓三十錢 無名氏 二圓七十五錢 奉天台 一圓 李秉權

本社興上支局經由分

一金十三圓十錢

內譯 朱伊面復興里有志一同

十錢 李甲煥 三十錢 李圭瓘 二十錢 李圭璹 三十錢 李鈴 三十錢 李錄 二十錢 李鏐 三十錢 李銀 二十錢 李金 二十錢 李鉉 五十錢 李鎌 五十錢 李鎰 二十錢 李鉐 二十錢 李鑛 二十錢 李鈫 三十錢 金盈海 五十錢 金尙海 二十錢 金亭植 二十錢 金仁鳳 二十錢 宋鳳朝 三十錢 張會述 二十錢 申春三 二十錢 韓健善 二十錢 高在聖 三十錢 尹晃周 五十錢 韓會女 (豊兩里分) 十錢 金明順 二十錢 朱景淳 二十錢 朱姬淑 十錢 朱順南 五錢 朱女淑 十錢 朱龍花

十錢 韓福姬 十錢 韓京南 五錢 韓貞順 五錢 金雙可馬 五錢 蔡七星南 五錢 李後南 五錢 魏貴南 五錢 李국시복 五錢 李順女 五錢 金五月突 五錢 金알강여 五錢 韓노래 五錢 韓次祿 五錢 朱生金 五錢 朱明順 十五錢 李甚淑 十錢 朴後福 十錢 韓貞姬 五錢 文仁德 五錢 金今南 五錢 金貞淑 十錢 朱道善 十錢 元貞淑 五錢 韓於平女 五錢 韓相姬 十錢 金次基 五錢 원기순 (以上西雲洞里分) 五十錢 李房敦 一圓 安辰奎 十錢 朴忠國 十錢 朱斗謙 十錢 元希權 二圓 金龍善

本社參禮分局經由分

一金三十八圓二十一錢

內譯 三圓 黃斗賢 三圓 宋炳雨 二圓 權日用 二圓 尹成執 一圓 洪在俊 一圓 河在確 一圓 朴相龍 一圓 李教敦 一圓 東洋醫院 一圓 無名人 五十錢 姜金玉 五十錢 鞠瑛煥 五十錢 李奇煥 五十錢 李憲相

五十錢 辛德初 五十錢 高伯俊 五十錢 金炯吉 五十錢 李錫 五十錢 韓判俊 三十錢 金判根 三十錢 金獜錫 三十錢 趙容中 三十錢 趙容變 二十錢 朴東變 二十錢 鄭權益 二十錢 李存禹 二十錢 鄭化成 十五錢 金一東 十五錢 黃鳳淵

十錢 曾德量 十錢 崔在妊 二圓 無名氏 二圓 后上里洞中一同 參禮飲食店組合 (島山農場現員一同) 一圓 朴俊喆 一圓 金民宇 一圓 金亭泰 一圓 張明順 一圓 趙重燮 (助村面新坪、營坪兩洞里分) 七十錢 朴景來

四十五錢 楊太錫 四十五錢 朴容來 四十五錢 黃今季 四十五錢 朴會鉉 四十五錢 李金岩 四十五錢 姜奉求 四十五錢 黃義哲 四十五錢 李在順 四十五錢 李希春 四十五錢 李宗三 二十錢 裵鍾實 二十錢 朴判得 十八錢 朱成玉 十八錢 黃正化 十五錢 楊斗永

本社忠州支局經由分

一金八圓六錢 衣類三十一點

內譯 (大召院光才幼稚園)

五十錢 朴先粉 二十一錢 裵春姬 二十錢 姜晉天 二十錢 李貴分 三十錢 申星浩 二十錢 李康安 二十錢 朴聖根 二十錢 張斗榮 二十錢 朴大興 十五錢 張亨植 十五錢 姜業眞 五錢 沈承直 十五錢 李成禮 十錢 崔聖洛 十錢 張俊奉 十錢 金甲鎭 十錢 金春變 十錢 郭榮浩 十錢 閔尙國 十錢 趙永福 十錢 李文基 十錢 姜正錫 十錢 金豊年 十錢 朴在崑 十錢 金樂植 十錢 安英海 十錢 金榮愛 八錢 金于欄 八錢 尹春心 六錢 韓東元 五錢 金萬順

五錢 金長禮 五錢 金英順 五錢 金福童 五錢 權泰元 五錢 趙再俊 二錢 任千蘭 十錢 邕基玿 十一錢 鄭文甲 四點 李康植 四點 崔孝信 五點 朴文植 三點 尹在武 一點 郭榮浩 四點 黃金龍 二點 安榮姬 二點 柳昌鉉 一點 陳相範 一點 金萬根 一點 金鍾夏 一點 金永達 一點 康海鱗 一點 郭泰福 一圓 嚴達燮 十五錢 南輔熙 一圓四十錢 第七日安息耶穌再臨敎會一同 十錢 無名氏 五十錢 柳海準 三十錢 黃獅周 二十錢 京忠鐵工所

本社明川支局經由分

一金十二圓九十八錢 衣類二百二十二點

內譯 五圓六錢 瓦硯長老教會一同 二圓 黃河一 一圓 鳳鳴醫院 五十錢 金泰瑀 五十錢 楊球業 五十錢 許勳哲 五十錢 花台洋服店 三十錢 趙仁鍾 二十錢 鄭錫昌 二十錢 文化洋服店 二十錢 李學龍 二十錢 金潤城 十錢 金化春 十錢 鄭壽岩 十錢 金永煥 十錢 趙鎭煥 十錢 許東極 十錢 許升天 (主日學校學生一同) 六錢 金今龍 六錢 李銀祭 五錢 崔釆連 五錢 李玉今 六錢 李相春 三錢 李根洙 一錢 申鐵玉 五錢 李柱漢 二錢 李永哲

五錢 李夢龍 五錢 崔昌善 四錢 李泰聖 三錢 許泰鉉 五錢 金瑞燦 五錢 李柱善 五錢 李柱銅 一錢 李永善 五錢 李玉蘭 二錢 申順玉 一錢 金玉骨 五錢 金順今 三錢 李銀喜 三錢 李柱益 一錢 金玉官 三十錢 無名氏 四點 太宗린 十七點 李東勳 三點 朴衡極 四點 全相鏞 一點 金河淸 三點 金菊花 一點 金琢勳 一點 金炳學 二點 崔蓮花 二點 韓八赫 二點 金承化 五點 嚴泰變 二十八點 金秀吉 八點 鄭根仁

五點 許澤龍 二點 奇龍成 八點 朴正學 一點 金基河 五點 全東金 一點 金致洙 七點 尹元松 四點 張景花 一點 楊世元 四點 孫永變 一點 權粉玉 十點 李韱勳 四點 金益 一點 李찬坤

七點 崔[illegible] 二點 李權夏 四點 金八奉 二點 金龍石 八點 朴水源 二點 申粉女 三十點 朱㒵晉 五點 廣和永 十點 趙昌吉 二點 李奉金 三點 朴有宗 八點 金承喆 三點 金昌俊 一點 金厚根

現金小計 二百八十四圓三十二錢
物品小計 二百五十三點

故鄕 (242)

李箕永 作
安夕影 畵

희생(犧牲) 十一

「자—그럼、윗모퉁이서부터돈아주세。자네가 먼저 식구수와 마처서、돈을 세여내노케! 잔돈는 모자라지안흘가?」

「대개 되겟지요。」

희준이와 김선달이 돈을세이기시작하니가 여러사람들은와—하고 문압흐로 대가리를 드리밀며 싹개를놋는다。

「아니 이러케들덤비면 정신이빠저서 일을볼수가잇는가 위스모퉁이에서부터차례대로 하나식 물늘테니、기다리고잇다가、부르거든와요。」

「그라지들。무슨수경할것잇는가 웬 하나식 부르거든오라구。」

조첨지도 희준이말을 따러서、박게잇는사람들에게 말을 건는다。

「자、지금부터、부를테요、거긔 길좀터노아요。」

하는말에

「네! 비켜、비켜라!」

하고 박게잇는사람들은 량편으로 짝 갈러서며、한가운데로、길을터놋는다。

「원출아!」

「예!」

원출이가 뒤동수를 글그며 사방의눈이、수비대의 총열처럼 겨우고잇는 속을、통과해서、방문압흐로 드러섯다。그는 수집은생각이 나서 뭉칫뭉칫하며、손을 가만두지못한다。

「야—원출이가 일등이로구나!—이자식아 돈을밧거든 그대로 나오지말고 절을하고나와」

「하하—참、풍평회때、상타러 드러가는것갓흔데—」

「난 맨꼬드랩이일텐데、언제쌀을파러다가、저녁을 짓는단!」

박게섯든사람들은、다시 또 짓거리기 시작하는데、김선달은、희준이가 세여준돈을、다시세여보면서 원출이를 처다보고는

「뇌집이 다섯식구지?」

하고 뭇는다。

「네!」

하고 원출이가、돈을막、바드랴하는데、

「엇재 뇌집이 다섯식구냐? 네식구지。」

하는 뒤목소리가 들니며、군중틈에는 수동이의 눈이 번득거린다。원출이는 이바람에 주춤해서、뒤를 도라보며、지금말한 수동이를 눈으로찾자주먹을쥐고、이빨을 옹옹그려붙고 달녀든다。

「우리 아주머니할내、다섯식구가아니냐。이자식아!」

「올타、옳어、재—고모가 요새와잇지안니。자—어서와바터라。」

하고、방에서는 그대로 내주라하는데、그러나 수동이와원출이는 점점갓가히마주서며、닭싸우듯한다。

「뇌、고모는 오날가지 안혓니、이자식아、」

「갓스면 엇쟤、넬모레 또오기로햇는데、이자식아!」

「이자식아、누가 간식구할너치기냐、지금잇는식구말이지 그러케 치기로말하면、손님온것까지 치게。애、우리집에도 넬모레손님이 올는지 모른단다。」

「이자식아、잠간 단이려갓다온다는데、네가무슨참견이야」

[illegible] 달녀드러서、수동이의 멱살을잡고 귀동이를 쥐여박는다。두사람은 서로못놋고、엎치락 뒤치락하며、악을쓴다。

「이놈들아! 싸우지마라。해다간다。원재네가、잘못이지 어듸、나간객식구까지 치는법이잇나。」

「잠간단이러 나갓는데、웨그래요、웨못처요。」

하고、원출이는、징징울며、으른에게달녀든다。

「허허—참、별일도 다보겟군! 그래서는 안된다。나간식구를 누가 친담!」

「그러치 그건 안될말이야!」

바갓군중은 또、난되업는풍파로말미암아、예서목군 제서욕군하고 야단이다。

「원 이런기급을 할놈의 일이 잇단말인가。」

하고、김선달은、돈세든것을내던지고、화를낸다。이때인동이가별안간 내다러서、싸우는두사람을 쩍갈너노며

「얘들아、고만두어라。어린애들이 어느새보터 그러케해서 어데다쓰니。원출이、늬아주머니몫은 우리집몫에서 한목빼줄테니、그러케하면 수동이너도、아모시비 업겟지! 큰일을 하는데는 조고만것은、타내지들마러야지、무슨일이되지。」

인동이의말에 장내는 조용해지고、두아해는 아모말업시 서로처다보고、픽웃고는 제자리로 물너선다。

「그러치、인동이말잘햇다。큰일을하는데는 조고마한일은희생해야 되느니라!」

김선달의말에

「그럿소。—자—어서논아줍시다。」

장내가 정돈되자 희준이와 김선달은 분배를 시작하야、해가저물게까지 그뒤로는 뚱파가업시 끗을맛첫다。희준이는사람에게 취해서 골치가압푸고이마에 진땀이흘넛다。

九月八日 (土曜)

◇午後六時〇分 連續唱歌劇(一) 朝鮮兒童藝術研究協會員 海金剛 第一景 바다가에서 —鄭寅燮作—效果柳基興 伴奏元致升 指揮鄭寅燮 【配役】少女…陸北順 나그네 毛麒允 船夫一…尹喜永 二…金泰哲 海女一…金龍燮 二…韓寶珮

◇六時二五分 常識講座 藝術小說과通俗小說에關하야(二) 沈薰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話 裁判小話(二) 辛泰嶽

◇同八時 念佛과아리랑 一、念佛 (가)念佛도도리 (나)길念佛 (다)山念佛 二、아리랑 (가)긴아리랑 (나)景福宮아리랑 (다)新아리랑 (라)咸鏡道아리랑 (마)密陽아리랑 (바)江原道아리랑 細笛 高載德 短簫 崔壽成

◇八時三〇分 流行歌 一、가을달…全壽麟作曲 二、네온의달빗…李景洲作曲 三、노자님아…全壽麟作曲 四、야속한꿈길 五、바다는바른다 李景洲作曲 六、無情…全壽麟作曲 피아노李景洲 빠이올린文鶴月 하와이안기타全壽麟 새소폰李興求 獨唱孫綿紅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赤壁大戰 申錦珍 鼓手韓成俊

◇同九時三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翌日프로그람發表 뉴—스再放送

九月九日 (日曜)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

◇午後〇時五分 氣象通報

◇同〇時三〇分 뉴—스

◇同〇時五〇分 野球試合實況 京城實業野球聯盟秋季리—그戰—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鐵道—京電 殖銀—遞信

◇同六時〇分 連續唱歌劇(二) 海金剛 第二景 바다에서 —鄭寅燮作—【配役】少女…陸北順 나그네…毛麒允 바위…元裕珏 어머니…金福姬 船夫一…尹喜永 同二…金泰哲 갈매기一、二、三、四…童謠協會員 朝鮮兒童藝術研究協會員 效果…柳基興 伴奏…元致升 指揮…鄭寅燮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恐慌의原因 吳天泳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音律 一、平調會相 二、與民樂 三、淸聲曲(大笒獨奏) 玄琴 金明煥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 라듸오·드라마 꿀스워드原作『太陽』一景 (配役) 잠…朱永涉 디지…金顯順 작크(兵士)…金正好 東京學生藝術座 效果…韓一峯 指揮…金永壽

◇自同八時三〇分至同一〇時 拳鬪試合實況 金恩鶴對영·아르데 職業拳鬪戰—京城運動場庭球코—트로부터中繼—

◇同九時三〇分(東)時報 뉴—스·氣象通報·翌日프로그람發表 뉴—스再放送

第一放送(九日)

◇午前一一時五〇分 (東)野球試合實況 東京大學野球聯盟 리—그戰 帝大—立大 明大—法大

◇同三時 (東)陸上競技 日米對抗陸上競技實況

◇同六時 (東)獨唱 齊唱

◇同七時四五分 (臺)臺灣音樂 臺北長春閣閣員

◇同九時 (東)호른과管絃樂 호른協奏曲 모—찰트作曲 —新交響樂團練習所中繼— 호른獨奏 월터—·슈레—더—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니코라이·슈엘·브릿드

九月十日 (月曜)

◇午前一一時五分 氣象通報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料理法 日用品時勢

◇午後〇時五分 笑話 것약은 金書房 吳澤泳

◇同〇時四〇分 뉴—스

◇同二時 家庭講座 敎育映畵에對하야(二) 徐光霽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事項

◇同六時 童話 報恩 高在天

◇同六時二五分 産業뉴—스

◇同七時 뉴—스、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話 世界宗敎의精粹 佛敎學監 金敬注

◇同八時 俗謠 一、愁心歌와 역금 二、子明歌 三、寧邊歌 四、긴아리랑 五、山念佛 六、雜歌 金玉葉 李眞鳳

◇同八時三〇分 二部合唱 一、인도하네·멥맨作曲 二、향긔롭게피엿다……혼—作曲 피아노伴奏 三、가을달……윌니암스作曲 四、流浪客 五、장미꼿……마살作曲 六、夜樂……뼤하作曲 李順甲 鄭貞淑 崔聖斗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玉樓紗窓 二、唱劇調 박타령 朱蘭香 鼓手 池龍九

◇同九時三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翌日프로그람發表 뉴—스再放送

水災에우는同胞에 輻湊하는同情의淚

奉化有志의赤誠 눈물어린五十圓 —感激!又感激!—

【奉化】 수재구제동정연주회를 성황히 맛치엇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동정의밤 그석상에서감격에넘친 동족에로 동포를살리라는 눈물어린동정금이 답지하야 실로 그총액이 오십원에달하얏는바 의연금 거출자의씨명과 금액은다음과갓다한다

▲五圓式 朝鮮日報奉化支局、中央日報奉化支局、金錫根▲二圓式 烈永植 金鑑淳 李貞鎬▲一圓式 鄭昞纖 鄭仙館 松竹館 無名氏 金信權 李蓮紅 都玉瓊 無名氏 金永性 金寶淑 李順玉 李基洙 李東一 馬士 無名氏 本報春陽分局長權興燮 ◎自動車部吳聖洙 孫春三 金根出 李日相▲五十錢式 權應燮 金正植 李愈春 李潤穆 李炳時 柳寬勳

江華各團體의 災民救濟烽火 本社支局에寄托

【江華】 륙보=남조선의수해로사십여만동포가 사선에서 방황중임은 루루히말한바 어니와 수해를 당한지 사십여일이나되여 흉독한여름은 물러가고 일긔가 선선하여 지는 이때에 집도 먹을것도업시 동찬로숙하는 동포의정경을 생각하면누구나동정의 눈물을금치못할 것이다 강화의 상배오십여 농촌진흥회의 동정열은 아직도식지아니하야 지난륙일에 본보강화지국으로 긔탁한 부내면옥림리왕림동조진흥회원일동의성금삼원육십오전을 비롯하야 선원면 회원일동(仙杏靑年會員一同)의 성금이원십전은참으로동포애에 넘치는바로서 즉시본사로 송금키로되엿다

兩韓氏의熱誠

【淸州】 청주남일면방서리(淸州郡南一面方西里)에거주하는한필수(韓必洙)한순구(韓順求)량씨는 본래동리의 아학、소년회、청년회등으로 청소년을 지도하야오는바 입청년열성가로서 금번에도 동리의 청소년중에서 약십원을모집하야 일부러량씨가 지국까지 가지고와서긔탁하엿다

三南水災同情 演奏音樂의밤

坎井青年團의 救濟金九圓餘

【金浦】 삼남리재동포를위하야 방방곡곡에서 금전후은물품으로 리제지로모히는 구제금품이매일 폭주하는이때에 김포군내면감정리(郡內面坎井里)에잇는감정청년단(坎井靑年團)에서는 삼남리재동포를위하야 의연금모집에 활동한결과 현금구원사십여전을 모하 지난칠일에 본보김포지국에 위탁하얏슴으로 즉시본사로 송금하엿다

慶山青年會主催 救濟映畵盛況

【慶山】 긔보=경북경산청년회는 한동안유야무야의 감이잇던바 금번삼남수재 구제를목적하고 대대적활동으로 지난팔월삼십、삼십일량일간 경산청년회관과 롱성산업조합 창고에서 열린 영화대회는 실로공전의대성황리에서 다액의 동정금을모집하야 동아、조선량지국에 의탁하야 송금키로하엿다는바 일반의 칭송이자자하다는데 압흐로도 동회의만흔 활동이계속되기를긔대하야마지안는다고한다

水害同情코저 어린이劇興行

【淸州】 청주군사주면내덕리(四州面內德里)에사는어린생도 팔구명은 남선수해동포를 구제하자는 의미에서 어린이의연극을하야 어든돈일원 구십사전을 본보청주지국에긔탁하야 왓다

稀有의大雨雹에 農作物全滅狀態

被害面積三萬七千町步多數 黃州郡一帶의慘狀

【兼二浦】 지난구월초순이래 과다한 우량으로 농작물에적지안흔 피해를입은황주군일대에는 또다시 지난칠일오전열한시반경부터 동열두시경까지 약십오분간 희유의대 우박(雨雹)이 폭풍우와 함께쏘다저 도작(稻作)묘천일백여정보는 상할이상의감수를 예상케하엿고 아직까지 거두지못하엿든 조(粟) 콩(大豆) 팟(小豆)등을 비롯하야 과라잡곡과 면화등 삼만칠천여정보는 아즉까지 자세한피해통계는알수업스나 칠할이상의 감수예상으로 거이 전멸상태이라 바호우는그후도계속폭주하야는 겸이포읍내 만도수도정、대정정、길전정(水道町、大正町、吉田町)등지에오십여호의 침수를보앗다한다

上洞村에 簡易驛設置願 六百餘連署陳情

【南原】 경전북부선남원、주생역(慶全北部線南原周生驛)간인 상동(上洞)촌에간이역 을설치해달라고 요사이에상동、중동 정송(上洞中洞貞松)삼동륙백여명련서로대표자가 철도 당국을 방문하고 진정하얏다는바 현재주생역(周生驛)은 거리가 십여리나 떠러저 한동철도의 편리를 보지못할뿐아니라 매일남원통학하는 학생이백여명에 불편이막심한바 철도당국에서도 일반의요망에 응하기를 바란다고한다

獨學으로成功 辯護士에合格 寧邊普校訓導 朴鉉珏氏

【博川】 지금녕변공립보통학교에 훈도로잇는 박현각씨는 보통학교사학년을 수업하고 대정십이년도 강습과시험에 합격하고 대정십삼년에 평북 구장공립보통학교 훈도로 피선되고 동년시월에 교원이종시험에 합격하고 십오년시월에 교원일종시험에합격하야 이래녕변 공립보통학교에 재근하면서 여가에학업에 면려하야 금번변호사시험에합격한것인데 모범할만한 독학가이라고칭송이자자하다

戀愛의煩惱로 薄命女의投身

【元山】 지난사일오후네시문천군명호면 어항리를떠난 진흥환(鎭興丸)이 원산항에 입항할지음에 녀자승객한명이 창파에몸을던저 자살을도모한 사실이 잇섯다는데 그익일인 오일오전십시경에야 그시체를 원산송롱해안에 표착된것을 발견하고끄러올렷는바 그는 문천군명호면에잇는 박진하(朴珍河)(二三)라는녀성으로 그가 이십삼세라는청춘을 뒤에두고 저세상을차저가게된 그리유를드르면 그는평소부터 의지가구든녀성으로 더욱이 남다른사상의 소유자로 문천군명호면 사립××학교 교원 한×찬(韓×燦)과 사상상 공명과 성격의합치로 본처가잇슴에도불구하고 결국사랑을 속삭이며 아래삼사년을 지내왓스나본처가잇는사람인지라 그들의신변에는 언제나 끈일수업는 폭풍우가 불기시작하엿든바 그가어항리에서 배를 탈때에도 쓰라린 사랑의갈등이 잇섯든모양으로 비련에저즌가슴을안고 원산을 향하든중 그만식그러운인세의 괴로움을이즈라는 결심이생겨그와가티 투신자살한 모양이라고한다

中毒은或有나 出血만은怪異 當地某公醫談

별항의 참사자를 진찰한신상 공의강준탁(姜濬卓)씨는아래와 가티말한다

급성중독성위장염(急性中毒性胃腸炎)으로나는진단햇소 생선이나홍으"게"에도중독됨니다 그리하야 여러가지중상으로 발병하는수가 잇슴니다마는 다량의출혈끄테 사망은 이상합니다 아주까지의 문헌(文獻)에는 이가튼것을 발표한례가잇섯다고생각되지안습니다

"게"(蟹)먹고中毒 青年二名死亡 定平郡下에서생긴慘事

【新上】 "게"를 끄려먹고 다량의 출혈끄테 참사한 현대의학으로는 풀수업는 의문의중독사건이잇다 함남정평군 문산면 남양리김시지(定平郡文山面南陽里)(金時智)(三三)와 동리김광식(金光植)(一九)두사람은지난어일에 잡은개울게(蟹)를 그익일아침에 끄려먹고 다시"게"잡이를 나갓다가 두사람은출혈하기 시작하야 응급수당을 가하엿스나 동일 오후여덟시경에그마참사하엿다는데"게"의중독은 될수잇스나 출혈은그례를 보지못한것이라한다

稅務署不正事件 去益擴大形勢

韓某는不日中送局

【元山】 일시 세상의 이목을 집중케한 원산세무서 부정사건은 강호(姜灝)등의 송국으로종국된듯하더니 지난달 삼십일에 또다시 원산서에서는 북청세무서간세과장 한장호(韓長鎬)를 알레류치하고 강전사법주임(岡田司法主任)이 직접준엄한취조를한결과 범죄사실전체를 자백한듯하므로 금명일중으로 일건서류와함께송국할모양이라는바 그가원산부청에 재근중수뢰(收賄)한재물도 거액인듯한바현금만도 천수백원에 달하는모양이라고한다 지금 함흥세무 감독국모씨도 이미출두의 형식으로 원산서의 취조를 밧고잇다는데 금후취조에 딸아서는 엇더한면으로 파급할지 예치키어렵다하며 본사건과 다소의관련이잇는 자가잇는데에는 원산서장에게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수뢰의사실을명백히하야 관대한 처치를탄원한자도잇다고한다

精神病者를 木炭火로暴行 迷信이나흔이惨劇

【兼二浦】 중화군 양정면 석정리(中和郡楊井面石井里)허균(許均)은 자긔안해가 다리고온자식 조봉녀(趙鳳女)(一七)가 수일전부터 정신에이상이 생긴것을 못된귀신이붓흔것으로 잡독하여엇서서 그귀신을내쫏츠에는 숫불로서 볼과손의 엄지가락(拇指)을 태워버리면낫는다는 미신을듯고 무지하게도 전긔롱녀를붓잡고 숫불로폭행을가하여 대화상을입어 생명이 매우위독하다는데 사실을탐문한 소관중화서에서는 목하관계자를 엄중취조중이라한다

印刷料請求訴狀 全南一帶에雪飛 印刷業和信堂의提訴

【筏橋】 전남순천읍(全南順天邑)화신당(和信堂)구례지소(求禮支所)라는 인쇄소(印刷所)간판을 부친든 림원생(林源生)이라는사람과 순천전군십사면장사이에 일어난 인쇄물대금으로인한 소송사건과 광양、보성(光陽、寶城)기타각군각면에는날어닷하는 내용증명통지서가 순천지청민사계로부터 각 관공서는물론 민간에까지 파란을일으킨다는바 그내용은 전긔림씨는 거금오년전 소화오년도부터 순천화신당 인쇄소구례지소의간판을붓치고 인쇄업을 경영하면서 주문의형식으로 전남일대를 도라단일때에 관공서와개인이 약간청구한곳도잇고 롱용한곳도잇섯다 그러나 전긔림씨는청구한바가 잇섯든업섯든 인쇄물을 계속부송함에따라 올면서『계자먹는』격으로 그인쇄물을 바더서 약간쓴곳도잇고 그대로둔곳도만핫다 수년이지내 최근에야 내용증명통지서를 발하는일방 소송을 연속제기함에따라 순천전군락안(樂安)월등(月燈)해룡(海龍)등 십사면장의 교대출두가 가관이요 순천지청판결여하에따라 공소(控訴)까지하

女子補習學校 作業場增築費 市民이千圓寄托

【鏡城】 함북경성녀자보습학교는일반 가정에필요한 실과교육을주로한 이년제의 녀자중등교육긔관으로 금년오월 개교이래세평이자못 량호한바 당국에서는특히 남면북양(南綿北羊)의산업정책에 감하야 일반가정에양모제품의 부업화를 도모키위하야 과반바적긔 십여대를구입하는일방 전일기술자를 초빙하야 매일련습중인바 작업장이협착하야 불편이 불소함으로금번경성군교육비로써 잠업실(蠶業室)과 "호ー무쓰"(빵제조실)을증축하리라는데경성주민은권긔시설에찬동하야녀자고보설치운동긔금으로 이미 모아두엇든금액중으로 금일천원을 긔부하기로하엿다한다

密輸戰線에鐵槌 青天霹靂의新取締令 圖們稅署서發表

【圖們】 밀수전선으로번창을 극하든 도문에도 맛츰내엄련한 가을이 오고말엇다 세관리의감시의눈은 끈일사히업시 현혹이 고잇스나 날이갈사록 교묘하야 가는 밀수전술은 종래와가튼수단으로는 도저히 방어할수업다 하야 엄마전세관장 국경경찰대 장 총령사분서장 만철소장등이 섯거두는 세관리의 눈을피하야 두마강만을 무사히 통과하면그만이라는 현재의취체제도 로는 도저히 만족한취체를 긔대할수 업스니 금후로는 비록창고에잇 는상품이라하야도세관인(印)이 업는것이면 두말업시 압수한다 는 새로운제도를 결정한후일반 상인에대하야 구월오일 까지에 재고품을 보고하라고 발령하엿 다는데 이로인하야 국경의상인 들은 막대한공포를 늑기여한동 안 번창하든 밀수전선도점차쇠 잔하야짐을 면치못하리라 한다 라고 작정한사람도 부지기수라 고한다

積鹽來仁途中 雙兒島에서遭難 遭難者二名中一名溺死

【仁川】 긔보=인천근해범선 조란사건은 임의보도 한바와갓거니와 전긔범선은시내빈정(濱町)십번지중본안태랑(中本安泰郞)의배로써시외군자면 (君子面)염전에서 소금약칠백원어치를싯고오다가쌍아도(雙兒島)근방에서 폭풍을맛나 침몰되것이라는데 선체는약삼십돈 시가구백원가량이라하며 전순해 액은일천칠백원가량이요조난자는강화(江華)사람리모(李某)외에 일인이라한다

嶺西蹴球大會 廿三日洪川에서

【洪川】 홍천체육구락부의 변 중행사의하나인제삼회령서축구 대회는오는 이십삼일부터 홍천 보통학교 그라운드에서 본보홍 천지국 후원으로 개최한다는데 때가 추석날이요 매년인긔의대 회이니만치 대성황을 예긔한다 고한다

懸賞入選小說 마음의太陽 (八十七)

玄卿駿 作 金熊超 畵

오는봄가는봄(三)

승옥이는 조반후 백회점으로가면서도 지난밤에 빨아너던경호의 아랫내복을 다시한번뒤집어노며

『못칠거 잇니?직접 갓다주지』

『아니 면회를 안식힌다는데 어떠케 가세요?』

『면회를 못하지 의복도 못갓다주겟니?』

『올바!』

하고 승우를 흘겻다

『왜그러니!』

『오늘 시간이 지나기전에그여로 사다보처세요 이것두거진 다밀니가요』

『그럼 아무리나 허세요 하여턴 시간이 지나기전에그여쿠 가세요』

『오냐 별러맡어라 너보담내가 따하다』

『그럼 꼭 미터요』

하며 승옥이는 신신부탁을 하고나갓다

그가 나간후 승우는 경호에게 회답을 쓰려고 하다가 아침에온 조간을 뒤적거리고 잇는데 밧게서 누구를 찻는 소리가 들렷다

반신을 이르키며 내다본 승우는 다음순간

『아스』

하며 놀나지안흘수가 업섯다

녀복한경호!

그럿타 문압헤 차저온 그녀자의얼골은 넘우나 경호의얼골과 틀님이 업섯던것이다

『저 미안하지만 말슴좀 물어봅시다』

『네……』

하고 승우는 얼빠진사람처럼 대답하엿다

『저 이댁에 김경호라고 잇섯습니까?』

『네?』

하고 승우는 더한층 놀나서 대답하엿다 동시에 그의머릿속에는 경호의편지가 떠올낫다

『경호군의 누님되시는 이가 아닙니까?』

하며 승우는 조급하게 물엇다

『네 그럿습니다』

하고 경순이는 승우를 처다보며 이상스러운듯이

『그런데 어떠케 아세요?』

하고 물엇다

『네 그야 얼골을 보구알엇지요 그리구 이걸 보세요』

하며 그는 책상우에서 경호의편지를 집어주엇다

경순이는 무엇인가하며 바다들고 보다가 그것이 옥중에서온 경호의편지인것을 알자 전신을 긴장식혀가지고 내려보앗다

둘은 맛난지 몃과몃분 안되어서 오래전부터 서로 미드며 친하여온것가티되엿다

『지금 어머님께서도 강녕하십니까?』

『네!덕택에 강녕하십니다』

『지금 퍽 속태우시겟지요』

『네!꽤 상심해 허십니다』

하고 경순이는 다시 이어서

『그런데 경호가 이리로 올나온후 고향집과 무슨 서신왕래나 잇는것갓습듸까?』

『아니 집과는 영영 소식을 끈헛습니다 한번두 편지한일도 업고 편지가 온일도 업습니다』

경순의입에서는 긴한숨이 나왓다

『단두분만 게서요?』

『네 저의 누의동생이 함께잇슴니다』

『그러하세요? 학교에 단니십니까?』

『아니 학교는지난봄에 맛추고 지금은 월급생활을 헌답니다』

하며 승우는 우섯다

『그럿슴니까?』

하고 경순이도 따라 우섯다

그는 그가 엇던녀자인지 한번 맛나보앗스면 십헛다 그리고 경호와의 사이는 어떠한지 의심스럽기도 하엿다그리다가 경순이는 문득 앗가본 경호의편지를 생각하엿다 편지 마지막끄테 씨워잇는 그말은 넘우나 친한듯한늬갓타엿다

(나가서 승옥씨의 치료만바드면 곳 나어지겟지?)넘우나 둘사이를 명백하게 설명하여주는듯한 말이엿다

(이넘 동안이나 한곳에 잇는 둘사이가 그저 평온하게 지낫슬리는 업슬것이다)

하고 저혼자 긍정하여버린후 속으로 빙그레 우섯다

그의머릿속에 떠올으는것은만흔 다운순간!

계순의얼골이엿다

초조해하는 그얼골!

가련한 그얼골!

來九月十日(第二月曜日)은定期休業으로합니다
昭和九年九月
南大門通 丁子屋
鐘路 和信
本町 三越
本町 三中井
本町 平田

夏期男女學生大募集 (二錢切手添付學則請求次第進呈)
朝鮮第一自動車學校
京城府太平通二ノ四〇番地 大漢門越便 (電話本局四〇六八番)

東京神田
駿台高等豫備校
新學期九月十二日開始 ◎文部省認定 ◎鐵道省指定 ◎東京府認可
(細則進呈) 午前綜合受驗科 午後綜合受驗科 夜間醫工受驗科

好職業
年少男女及學生諸君에게 簡易高尙有利 本業務依託收多 見本無代送呈
大阪東淀川局私六號 文明之日本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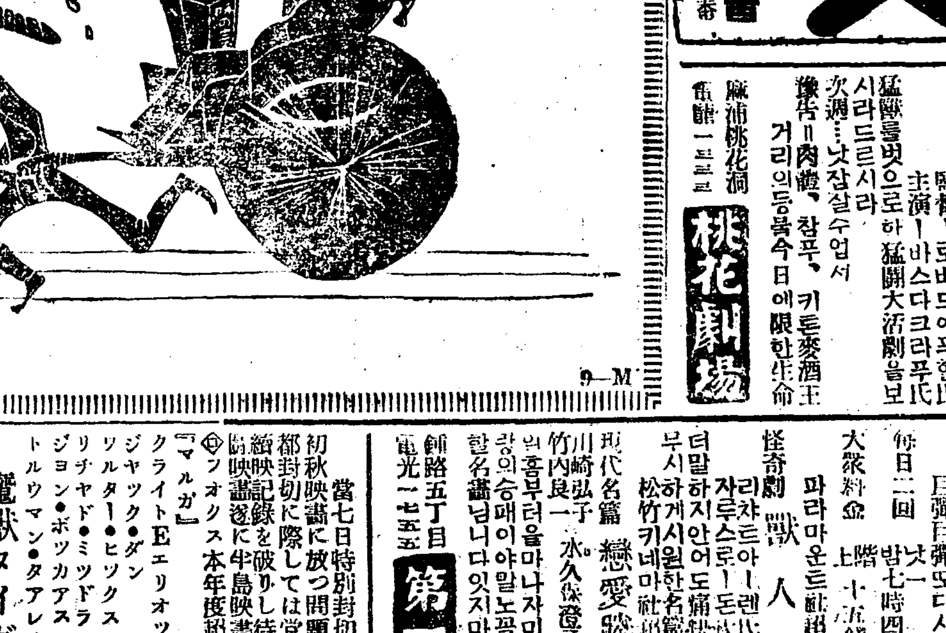
恩給
長期短期極有利 立替照會細答 京城授恩洞一六〇 鄭商會

カメヤ旗店
優勝旗 校旗 賞旗 會旗 團旗 業旗 國旗
京城府黃金町五丁目七番 電話本局一五八四番 振替京城三八四番

京城 金銀地金分析賣買 合資會社杉山商會
高價買入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七四番

別莊
朝鮮料理 西洋料理
太西館
京城府公平洞七八番地 電話(光)一三〇四番 二〇五六番
漢江鐵橋越便局前 電話(龍)一三四一番

피부병의良藥
尾澤 全治水
●밀으옴 ●무좀 ●음부가려운데 ●헐어무른데 ●버짐 南京虫其他
各地藥店에有함
本舖 合名會社 尾澤商店



味の素
日本名物 녯날은人力車 只今은味の素
金鉄商標
味の素本舖 株式會社鈴木商店
9—M

大懸賞 切迫 到
森永キャラメル藝術
九月十五日까지
送先 東京市芝區田町 森永製菓株式會社 學藝部
詳細는近處菓子店에
MORINAGA'S MILK CARAMEL
K—25

金剛키네마超特作 敍情詩 靑春 監督 李源鎔 ...
朝鮮劇場
九月六日堂堂封切り
1、短篇ニユース 一卷
2、短篇漫畫 一卷
3 パラマウント特作喜劇日本版 監督アルバート・ロジェル 主演エドモンド・ロウ ヴィクター・マクラグレン
△女は要られえ 八卷
男子一と度志を固めて……斷然要らねえ!!とは云ふものゝの消ばがりは別であるデス
4、パラマウント社本年度唯一の爆笑篇!! パラマウント超特作日本版 監督マリオン・ゲーリング 主演シルヴィア・シドニィ フレデリツク・マーチ
△路傍 八卷
路傍―希望も生活も素通りして行く路傍人に忘れられた街の斯の路傍で鬪らずも拾つた戀

浪花館 明治町一 電本二一三

R、K、O會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九月七日부터特別大公開!
스포ー쓰파래드 全八卷
M、G、M超大作全發聲日本版
男子는싸와야한다 全八卷
河合映畵社特作連續篇
꼿가튼아가씨 全六卷 原作 八尋不二氏 吉村操氏監督
第一篇 靑春時代 主演 琴糸路 中野洋一 大岡怪童
優美館 黃金町 電光三九五

九月八日밤부터特別大興行 午後八時부터始映!!
◇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一均
◇유니버살社映畵 아메리카洲 全篇
大都社映畵超特作冒險篇
冒險大活劇 肉彈의王者 全七卷 監督……大江秀夫氏 鳥人……隼秀人氏力演
決死的大活劇의日本뎍맛지로서 식식한어肉彈의王者를보시라
◇新興푸리시발社超特作 全發聲映畵
大雄篇冒險篇 無敵다ー산 全十卷 監督 로바드 에푸힐氏 主演 바스다크라푸氏
猛獸를벗으로하는 猛鬪大活劇을보시라
次週……낫잠살수업서
豫告 肉體、참푸、키톤麥酒王 거리의등불 今日에限한生命
桃花劇場 麻浦桃花洞 電龍一三三

九月七日낫부터三日間 巨彈巨彈또다시巨彈?
每日二回 낫一時 밤七時四十分 始映
大衆料金 上階十五錢 下階十錢 均一
파라마운트社超特作品
怪奇劇 獸人島 全八卷
現代名篇 戀愛勝敗 十二卷 主演 川崎弘子 竹內良一 水久保澄子
第一劇場 鍾路五丁目 電光一七五

當七日特別封切 初秋映畵に放つ問題の名畵!! 滿都封切に際しては堂堂五週間の續映記錄を破りし待望の猛獸爭鬪映畵遂に半島映畵界に現る!!
フオクス本年度超特作日本版
魔獸タイガー 『マルガ』 クライトEエリオット決死監督 冒險錄音
中央館 永樂町一 電本二二三

經濟解說

產業·金融 兩組의歸結 大體어떠한徑路

申泰翊

朝鮮에서의 產業組合과 金融組合을 統一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問題로 지난번에 殖產、財務、農林의 三局聯合協議會가 잇섯고 또 各產業組合長會議가 連四日間을 열고 잇는터이다 이와가티 兩組合問題가 생기게된 經路와 오늘에 잇서 그歸決의 內容이 어떠케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

지금으로부터 十年前까지는 金融組合만 잇섯고 產業組合이란것은 업섯다 그런대 金組는 信用組合의 範圍로 購買、販賣、利用事業은 업다 그래서 十年前에 殖產局에서는 以上의 三事業이 必要함을 認하고 그것을 目標로한 產業組合의 創設을 計劃하엿다 그러나 이에 對하야 財務局側에서는 朝鮮으로서 產業組合은 그時期가 尙早하다는 理由로써 그 計劃을 認容치 안흔 때문으로 產業組合의 計劃은 中止치 안흘수가 업게되고 말엇니 이처럼 計算이 認容되지못함을 不拘하고 殖產局에서는 計劃한대로 進行하야 結局에는 大正十五年一月에 制令第二號로써 朝鮮產業組合令을 公布하고 同年三月一日로부터 施行하엿다 이것으로써 朝鮮에는 金組와 產組의 倂立을 보게된것이다

×

이와가티 產組가 創設되엿지만 그뒤 實際의 成績을 보면 當局者가 期待한바와 가티 못되고 어느 程度까지는 有名無實의 感이 不無하엿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하면 當局者가 말하는 理由로는 무엇보다도 豫算이 업는데 잇다고한다 그래서 產組의 數는 約十年間의 歲月이 지내왓스나 그數는 오늘에 잇서 五十五個所에 不過하고 一向 何等의 進展을 보지못하고 잇다 그러고 最近에는 農林局으로부터 產組는 그性質上 殖產局의 管轄이 될것이아니라 農林局의 管轄도 되어야 當然하다고 主張을 하엿다 結局에는 產組問題는 殖產、財務、農林의 三局에 엉크러젓다

×

그런대 二年前으로부터 所謂農村自力更生의 運動이 생김을 말미아서 產組를 그 不振의 狀態대로 내버려둘것이 아니라 產業的機能이 잇도록 하자는 主張이 생기고 이 結果 昨年에 잇서서 昭和九年度豫算編成의 當時 財務局의 諒解를 어더가지고서 처음으로 一萬五千圓의 補助를 計上케되고 이것으로써 新設產組十五個所를 맨들고 그 一組에 對하야 五百圓씩 補助키로 되엇나 그러나 一組의 五百圓補助金으로써 그 發展의 큰 期待를 바랄수 업다 이런 때문으로 產組不振이 繼續되고잇다 그래서 今春으로부터는 다음과가튼 意見이 생기게되엇다

▲오늘에잇서서 金組는 六百餘個所의 多數에 達하고 또는 그成績이 相當하다 그러나 現在以上 一層發展할 餘地가 적은즉 產組를 金組에 合倂하야 日本內地의 產業組合과 가티 信用、購買、販賣、利用의 四事業을 한데 통치는것이 兩組를 通하야 新生面의 길이 열니게될것이라고 하엿다

×

그러나 이에 對하야 反對의 主張도 相當함으로 結局에는 지난四日 三局聯合協議會를 열어가지고 根本的方針을 決定한것이다 그 結果가 產組는 金組와 關係가 업시 그 機能을 擴充하고 다만 압흐로 兩組가 連絡을 取하기로 됨에 끄치고 만것이다 그런대 產組의 機能擴充이란 것은 무엇을 意味함인가하면 이것은 大體明年度豫算上 十萬圓을 計上한것으로써 볼수밧게 업다 그럼으로 產組金組의 問題는 別無變化로 從前과 가티 倂立이 繼續케되는것이다

正租八十八萬石 殘餘全部를解除

三南水害等으로米價底堅 粟、灣米輸移入增으로

【八日正午農林局發表】 지난八月七日 第三回 長期貯藏正租解除以來 二次에亘하야 政府買上米 約七十三萬石의拂下가잇섯다 米價는 依然 底堅狀態를持續하고 그形響이 매우적을뿐아니라 南朝鮮의 水害等으로因하야 此等米穀을 大體 朝鮮內에서 消費되야 八月中에 移出米도 前年보다 約四萬石의增加에不過하고 또滿洲粟은昂騰할뿐인데 그輸入과 灣米의移入도 最近 또顯著히 增加하는傾向임을보고 長期貯藏正租殘額 約八十萬石全部의 解除를알에와가티 承認키로하엿다

(一) 解除申請終了時期=九月十五日 (二) 解除時期=申請終了直後 (三) 解除數量=貯藏殘額全部約八十八萬石 (四) 解除正租에對한 補助金交付에對하야는 第一回解除의分에對한取扱과同樣 (五) 其他는 모두第一回解除의境遇에準함

材料로서旣出盡 淸算市場殆無響

解除보다도颱風念慮

長貯正租殘量八十八萬石 解除發表를보고도 淸算市場은依然히 堅調를不失하고거의無響이엇스니 卽八日後場期米는大阪先限寄價가 二十六圓二十九錢으로前止보다 一丁高임에對하야 朝取期米先限後寄는 二十三圓三十一錢으로 겨우四錢低로敬意를表하고 二節二十四錢에떠러저 前場中의高價四十錢에比하면 十六錢低에不過하얏는바 朝鮮內各地期米後場寄와 前場止의比較는如左하다

▲各地期米八日先限市勢

	後寄	前止	比較
朝取	二三·三一	二三·三五	四低
釜山	二三·三六	二三·三六	不變
大邱	二三·二三	二三·二二	一高
群山	二三·四〇	二三·四五	五低
木浦	二三·四五	二三·四八	三低
鎭南浦	二三·四七	二三·四七	不變

如斯히 解除發表는解除에逆行한다기보다도이미材料로서市勢에織込된것과 颱風念慮가 이에添한것갓다

各道別協定 秋繭基準價

各特殊事情을加味

秋繭共販各道基準價格協定에對한條件을드르면 알에와갓다

▲忠南은 總督府協定대로▲慶南은總督府協定外에獎勵費十錢(每五錢)▲平南은總督府協定外에上簇改良獎勵費十錢(總量의約二割)▲黃海道는總督府協定外에 上簇改良費十錢▲忠北은總督府協定대로但十四捫太繭의境遇도 出荷獎勵十錢 十五捫以上同五錢▲全南은總督府協定外에上簇一捫 此外에約四分一은 月末까지 養蠶家가希望할때의 갑으로買收▲咸北은總督府協定대로 ▲平北은總督府協定보다 半捫低 以上中 忠南、黃海、慶南은繭取扱場使用料를 밧지안코京畿道는八日 全北은十日協定 慶北은 協定中인데 上簇改良出荷獎勵費를 豫想키로되엿다

樺太에서 朝鮮米注文

最近漸增狀態

樺太內의糧食은 從來富山、秋田、北海道等에서 年間三十萬石移入可當되는바 北海道米는 混砂米禁止問題以來 移入되지못하고 富山、秋田米도市勢關係로移入되지못하야最近에는거의朝鮮米가移入되는터인데 요새 朝鮮米協會를通하야廳內地同業米穀商으로부터 購入斡旋을하엿슴으로 今後樺太는朝鮮米의新市場을相當히期待한다고한다

米倉在米數量

八十七萬九千石

米倉會社의在米量은 三日 朝鮮興業倉庫買取引繼에 依하야 約四萬石增加의 九十二萬二千餘石으로되엿바 一面拂下米의出庫를五日現在에는 九十萬臺가깨여저 八十七萬九千百二十一

繭買入商自衛策

共販價보다二掛高以內買入

今年秋繭出廻當時 共販價보다 指定商이 高價買入을한것이問題가 되야指定商은 秋繭出廻로부터 共販보다 高價買入치안흘것을 道에向하야誓約한關係와 製絲家側으로부터 自由繭市場의 廢止를 策動하는傾向이 잇슴을 念慮하야京城의指定商들은할수업시 自衛策으로알에와가튼方法을取키로하엿다고한다

(一) 自由繭市場은 東大門外四個所에限定

(二) 繭買入價格은 共販價格보다二掛以內의範圍로限定

(三) 賣買에對하야 道에서監督不正을防止

(四) 製絲家는 一定한手數料로 그繭을買取할것

(五) 製絲家의自由市場繭入手는미리協定하야買入

◇……製絲側其他壓迫

政民兩案審議延期

次回米穀顧問會로

【電通東京電話】 米穀顧問會는 八日午前十時半부터 農相官邸에서열고 前回에繼續하야米穀對策調查會에 提案할基礎案에關한協議에드러가 正午에散會하엿다 今日의顧問會議에서는政民兩黨의米穀對策에關하야東、高田兩顧問으로부터說明을聽取하고또 兩案에對하야意見을交換할豫定이든바 東顧問旅行中으로 缺席하고政民兩黨案의審議는次回에 넘기기로되엇다

米日爲替少高

【京城七日發聯合】 七日의米日爲替는 賣二十九弗九十四仙으로三仙高 買二十九弗九十九仙으로二仙高

▲東京爲替(八日)

對米 賣 二十九弗八分七 買 三十弗

對英 賣 一志二片十六分五 買 一志二片 八分三

▲大阪爲替(八日)

對米 賣 二十九弗八分七 買 三十弗

對英 賣 一志二片十六分五 買 一志二片 八分三

無煙炭合同 具體的討議

不遠首腦會議開催

三陟保留無煙炭田拂下를 前提로하는 無煙炭合同問題는 舊臘朝鮮無煙炭脫退에依하야 一時停頓狀態이든바 總督府當局에서는殘餘四社에서 合同을進行할方針을 確定하고豫算編成期가끗남을기다려서 積極的으로 合同談을進行하라고 準備中이더니 總督府의招請에依하야 八日入京한三菱製鐵 松田常務와朝鮮無煙炭加藤常務와 不遠入京豫定인東拓鑛業中島專務를 中心으로 不遠具體的討議를하기로되엿다

農林省에서 格付會議

十一、十二兩日

【電通東京電話】 農林省에서新米穀年度의 米穀格付에關한協議를하기爲하야 十一、十二兩日 農林省에서道府縣穀物檢查主任會議를열기로되엇다

最後案決定後에 日蘭代表折衝키로

【바타비아七日發聯合】 日本代表部는 海運問題에 關한政府의訓令에 基하야蘭印側과協議를進行하고잇는바 蘭印側은 이제는 거의讓步할 餘地가업다고 海運問題를 最初에處理할것이다라는 蘭印側의要求와 日本主張과의 間에아직間隔이잇서 極히微妙한關係에잇슴으로 日本側은 愼重히 案을講究할 必要가잇슴에따라 九日까지에 最後案을 決定한후 十日兩首席代表의 會談을行하야 最後案에對하야 折衝을行할터이다 一方 사로問題에 關하야山中顧問은七日午後二時 할트代表를訪問하야 協議하얏는바 八日午前十一時부터 다시會議를 열터로그際大略決定點에 到達하리라고觀測되고잇다

夏秋繭은 二割減少

農林省의豫想

【東京電話商通】 夏秋蠶은農林省의限產勸誘에도 不拘하고 養蠶者大日本蠶絲會에 依한樹立 夏秋蠶은前年實數에 比較하야 一割四分四厘減으로 發表되엇든바 其後九州地方의 大旱魃東北地方의低溫에依한 桑葉不良과 繭價崩落에依한 養蠶家의意氣阻喪으로 夏秋繭은前年實收의二割減의四千九十一萬五千貫으로豫想되게되엿다

今日財界 (八日)

米 (單位錢)	今日止	前日比
仁川期米先限	二三、三一	四低
大阪期米先限	二六、二九	一高
⑪三等米一石	二四、三〇	一〇高
京城韓白米一石(正米)	[illegible]	不變
正租(仁川)(改良)一斤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錢價		
金	一匁賣 一三圓四〇錢	一匁買 一三圓二〇錢
銀	一九錢五厘	一八錢五厘

株 (單位圓)	今日止	前日比
東新	[illegible]	[illegible]
朝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止	前日比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고무現物(錢)	[illegible]	[illegible]

三日間의戰跡

底入?瓦落?

五日後場 東京東新이 百四十一圓四十錢에까지떠러젓다가 四圓三十錢에 올라二圓九十錢이 急返되어 底入모양이엇스나 六日은 一息이고 七日은 前場에 日產이 大阪短期 百二十二圓四十錢 新低價에 崩落함을 따라 東新、大新도 百二十三圓丁에 떠러저 形勢決益惡化되고 其他로 다시恐怖人氣이엇스나 또 勃然反撥되어 東新은 도리어 六日大引價를 上廻하는 强調를示하야 突込側의 煎物과新規買까지 잇섯지만 今前場은 戾賣로再落하는 不勢를 呈하야 底入되지안흔것을 알게하얏는바 東京東新은 昨後場에 百四十四圓六十錢 今前場에 百四十四圓四十錢이 잇서 五日低價에서 위로三圓棒을 갓엇다。底入이냐?다시本格的瓦落이냐에 對한 市勢觀은 자못 區區하야 輕斷을 不許하는 터로 여러가지 意味에 잇서서 來週가 注目되엇다

後場과七日後場의 新低價後 急反撥된 底强味를 無理한 賣로 그만 押止되어 買라고만 解釋할것이아니라 市勢에 그만한 强味가 잇슴을 생각하야 突込보다는 利喰를 生하기를 願하얏든바 果如何? 봄이 妥當할것가튼바

低落原因과 大勢觀測

悲觀依然不要

秋高期待가 背馳되고 反對로 떠러진 까닭이 무엇이냐? 市勢는 根本的으로 悲觀할것이냐 一時的下落이냐가 市場人의 가장 궁금히 역이는 點으로 이解釋如何가 今後方針樹立에 絕大한 價値가 잇겟는바 먼저 低落原因으로 볼것은

一、日銀이 重大한職能을 忘却하고 市中銀行의 注文이잇는대로 公債를 發賣한 때문에 金融이 梗塞된것

一、內閣이 弱體이오 內部의均勢가 업는것

一、外交關係에잇서 北鐵交涉이 失敗되고 日蘭會商도 遲滯되지안코잇는것

一、內政方面에잇서 議會解散與否未定、滿鐵機構無定見

一、財政方面에잇서 增稅非增稅、公債政策等 一切不明

等에因한것으로서 現狀이打開되어려운것이事實이나 株界大勢를論하면 金融도緩慢이겟고 金利低下도必然이겟스니 根本的으로 株界前途를悲觀할 必要는 不當하며 먼저 玉整理를 徹底히하고나서 惡材料가 하나둘식好轉되에 딸어市勢는 膽勢를加케될것으로봄이若何?

市勢갈팡질팡

人氣도彷徨

新低價로 떠러지고나서 急反撥을 두번이나 演한點으로 보면 底入이 接近되엇것가타야、突込이 警戒되는 一面 戾賣에 눌리어 再落을 不辭하고 거듭하는點으로보면 底入은 尙遠한것갓다 如斯히 市勢가 波瀾

株界六感

×

제법强烈한 急反撥이두번식 잇섯스나 戾賣로 今前場은 또反弛

×

急反撥되면 底入觀이생기고 賣抑되면 未底入이라하야彷徨

×

今後二段三段의 低落이남어잇슬지도모르나

×

嫌氣에嫌氣를거듭하고 가진 惡材料를떠들대로 떠들고나서 最後的整理를하는中이나

×

市勢는 整理가 끗난가부터 機會잇슬때마다 回復步調에向할것만은 確實할듯

×

整理進捗程度와 好材料出現與否가 今後의 問題이겟스나

×

市勢가 根本的으로 徹底한 賣時代에 入한것이아닌즉

×

이로부터의 低價는 買下할 勇氣와 膽力이必要

期에入하야 갈팡질팡함을 떨어 人氣도 彷徨氣味인것이 事實인데 此際에 잇서서 가장 賢明한 商方針이라할것은 强氣側으로서는 아즉 더 低價가 잇스리라고 未底入된것이라 假定하고 破格的 賣에 가잇기를 기대려 買進할것이오 弱氣側으로서는 설령 압흐로 더 큰 瓦落이 잇다치드래도 五日

商況 (八日)

株式 또戾賣로 反落

前場低落 昨後場引際急反撥로 再次恢復되것가타엿스나 今前場은休日을압두고 買物不網하고또다시 戾賣物로反落裡大引이엇스니 即日產은 百二十三圓五十錢에 一圓低 東新百四十三圓五十錢에 七十錢低 大新八十九圓四十錢에 七十錢低 朝新二十七圓五十錢으로 六十錢大引 帝人百六十九圓八十錢으로 七十圓丁 日魯六十七圓八十錢으로 六十錢大引 安取六圓八十錢이엇섯는데 前場中步調는如左하다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後場休會 後場은例休인데大阪短期氣配가 大新十錢低 鐘新과日產各二十錢低이나 東新은百四十三圓三十錢으로 三十錢高이엇슴으로 當地氣配도大體不安裡氣迷이엇다

實物前場取引

▲에타파이新 二四、二〇▲第二에타파이 二四、五〇▲三菱鑛業 三六、四〇▲日滿洲工廠 三六、二〇▲日滿[illegible]▲東洋麻 [illegible]▲朝鮮紡織 [illegible]▲東滿[illegible]▲福井人絹 三一、〇〇▲同新 [illegible]▲東京電燈 [illegible]▲大同電力 [illegible]▲同新 [illegible]▲日光[illegible]▲大同產業 [illegible]▲東邦電力 [illegible]▲日滿아루미 [illegible]▲鐘紡新 [illegible]▲日立 [illegible]▲人造羊毛 一〇、〇〇▲富士木材 [illegible]▲三菱重工業 [illegible]▲製作 [illegible]▲帝火 [illegible]▲東拓 [illegible]▲新興人絹 [illegible]▲錦華人絹 [illegible]▲東洋 [illegible]

拂下米賣行과 秋日氣의不良

兩次拂下의威脅을밧어 市勢는各地共히慘落을告한後因而底迷의狀態를呈하는中인데 拂下米는大體賣行이良好하야仁川에서落札된 十一萬石으로보더라도就中多隣錦은日本內地의買注文에依하야 着着移出되는中이며 그外普通米도道具米化할餘地가업시精米所의原料로 吸收되어오히려品薄의嫌이업지아니한것가태서正租의殘量解除가發表되엇지만大幅瓦落을招致할지疑問인것갓고 天候에잇서서는今朝石垣島附近의颱風이九州와南朝鮮方面을襲來할憂慮가업지안을뿐아니라 早冷의嫌이업지아니함으로또한不安을늣기게되다 何如間大勢는這般의暴落으로써底入이되엿다할수잇슴으로찰아리『오시메』買가得意가아닐까한다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 金融狀態의緩慢을反映하야 內國債는第一回四分利가 五錢高를비롯하야 모다五錢乃至十錢引締이오 佛貨債、米貨債 五分半共히三四十錢高를 示하얏다

一回四分	九八、七〇
二回四分	九八、九〇
佛貨四分	一八五、三五

正租解除 期米 微響

前場頑强 昨後場阪地二十六圓十九錢止와 共히二十三圓二十七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 入하야阪地初付二十六圓三十四錢인 十五丁突高를 繼하고 二十三圓三十一錢인四丁高도 場을始한後 阪地七節二十三錢으로 反落함을伴하야 二節三十八錢으로 三十一錢까지下押하더니 結局은阪地二十八錢으로返戾止場함에딸아四十錢으로三十五錢에場을止하엿다

後場少落 後場은正租解除發表도 別로影響이업시 二十三圓三十一錢에 僅히四丁低로始場이엇스나 賣物이나와서 二節二十四錢。三節二十一錢에 漸落이고 四節二十三錢。五節二十二錢에 下落이엇스며 別欄가티止場하다

正租殘量解除

亦是別無影響

米價는依然低堅하야 지금까지의拂下나 正租解除가別로影響이업고 도리혀品貴狀態임에鑑하야農林局은 八日正午에長期貯藏正租殘部八十八萬石全部解除를發表하얏는데 後場은寄付에僅히四丁低 二節에二十三圓二十四錢으로 前場高價四十錢에比하야十六丁低의 程度로別無大響이엇다

颱風의猛進과 天氣의槪況

低氣壓은發生當時보다 그勢力이又一層强烈하야七三八粍로擴大되어그進路를北北東으로 今朝石垣島北方約四百粁의海上에까지突進하엿다 此에伴하야 南朝鮮一帶는비가되엇스며下關은南東風이十五米에達하야降雨를催하고 九州는曇天이나中國及南朝鮮一帶에는七五〇粍의小低氣壓이잇서 이十三米에達하고又小青島附近에서는 中部以北은滿洲와共히曇天인데 警戒의颱風은오히려北東으로進行하야 明日頃에는九州南部를通過할모양이나 漸次半島附近으로接近하여옴으로南朝鮮은多少風雨가强할것이오中部以北은 그다지影響이업슬이라고 仁川觀測所는發表하엿다 何如間此颱風의豫報로市勢는幾分强味를添하는觀이잇다今後果何如?

米豆餘話

◇…때는金風이颯颯하고 蟋蟀이嘶鳴하야 正히淸秋의氣分을나타낸다 그러나早冷이念慮되는 滿洲稻花는 바야흐로結實되려고하는데 반갑지못한風雨가種種襲來하야 農家의悲觀은 依然未解消

◇…今朝石垣島附近의颱風은 九州와南朝鮮을侵入하려고 方今北東으로猛進한다 此가通過하기前에는安心할수업는걸

◇…그리고 一時壓迫을加하든拂下米는 賣行이意外良好하야 오히려品薄을告할憂慮가不無

◇…何如間大勢는 底入을내엇다하여도 過言이아닐것이다 押目이잇는곳에는 賤量過치말고 買進할지어다

◇…今日正午農林局은 長貯正租殘量八十八萬全部解除를發表하엿다 이것으로因하야 後場부터어떤 波紋이잇슬는가?(前場記)

各地正米

京城頑强 期米引締도 容易하야 賣方의態度强硬하야 買方의氣乘薄과共히 新規取引은업고 取引이閑散하야 大槪十錢高를告한 ㊂三等二四、〇〇 四等二四、[illegible] 一等白米一〇、[illegible]

仁川引締 白露天候도大體平穩하나 落札米의消化一巡과 日本內地照會도 比較的順調임으로 氣配十錢引締인 ㊂三等二四、[illegible] 四等二四、[illegible] 一等白米一〇、[illegible]

群山硬化 日本內地가一巡買한뒤이라 取引은 大口가업스나 產地出廻杜切에다가 定期가引戾되엇슴으로 氣配一、二十錢方硬化하야 ◎三等二三、九〇 四等二三、一〇 一等白米一〇、〇〇

木浦强含 常用의買氣가多少잇스나 適品이乏하고 新規取引은안되어 期米引締模樣과相俟하야 幾分强含인 ㊂三等二五、一〇 四等二四、九〇 一等白米一〇、二〇

南浦反撥 昨日의暴風으로 賣物이激減되고 定期好勢로買氣를刺戟하야 賣行이多少잇서 二十錢反撥인 ㊂三等二四、七〇 四等二四、五〇 一等白米一〇、三〇

釜山硬調 出廻는五百叺猶新規賣物이적은데다가 日本內地高를듯고 賣腰가硬化하야 二十錢高를告하얏스나 高値는買躊躇로大口取引이업고 朝來六百三[illegible]

大邱好轉 定期의好勢와 白露天候의不良으로 買氣가旺盛하야 一齊히 引締되고 白露天候에 强化되어 十錢高인 ㊂三等二三、四〇 四等二三、一〇 一等白米九、八〇

堂島前場反騰

【大阪電話】 白露天候의險惡을 傳하야 買氣擴張되어 引返이엇스나 價는依然採算系의 賣物이 多하야 高騰勞賣抑壓되어 寄說은 伸悩商情이엇다

▲賣方 東京側 中東側 中國側 ▲買方 場違側 正米側 地場側 神戶側 播州側 西山側 株式側

▲中限(賣) [illegible] ▲先限(賣) [illegible]

朝取期米取組高

▲當限(賣) [illegible] 一〇〇 [illegible]

證券部開業謹告

拜啓 秋冷之候 愈益淸穆하심을至極히慶賀하나이다。陳者弊店은從來朝鮮取引所米豆取引員으로營業中이든바近者米界不振에도不拘하고格別한援助를주시와惠澤으로業務가益益繁榮함은여러분의厚意에依함이라고感銘하여近時經濟界好轉으로證券界進出의必要를느끼어今回證券部開設의認可를申請中이든바去六月十二日附로當局의認可를엇엇슴으로吉日을擇하야營業所를新築하고九月七日부터營業을開始하게되엿사오니特別한愛顧를바라오며精神的으로奉仕하기로決心하엿슴니다。

昭和九年九月

株式會社 朝鮮取引所 證券取引員 米豆取引員

太新田義民商店

證券部 京城府黃金町二丁目九十九番地 電話本局長 三八〇四 三一九八三〇

米豆部 仁川府海岸町三丁目一番地 電話長 二四〇四、四六二

自宅 京城府南山町一丁目六番地 電話本局長 五六

金融 (八日)

海外經濟

倫敦金塊 一四〇志九片二分一 / 倫敦銀塊 二二片一六分一三 / 紐育銀塊 四九仙二分一 / 米棉 [illegible] / 印棉 [illegible] / 乙 [illegible] / 아나콘다 [illegible]

朝鮮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 正貨準備 [illegible] / 保證準備 [illegible]

日本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 正貨準備 [illegible] / 預金高 [illegible] / 貸出高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枚數 二、九三二枚 / 金額 [illegible]

東京金利

翌日物 [illegible] / 無條件 [illegible] / 手形 [illegible]

大阪金利 (七日)

翌日物 [illegible] / 無條件 [illegible] / 月越物 [illegible] / 商業手形 [illegible]

對外爲替

英米爲替 [illegible] / 米日爲替 [illegible] / 對英 [illegible] / 對米 [illegible] / 上海 [illegible]

金買入價

日本銀行 一匁 [illegible] / 朝鮮銀行 一匁 [illegible] / 京城鍾路 一匁 [illegible] / 京城本町 一匁 [illegible]

米穀 (八日)

京城正米

㊂三等米 一石 [illegible] / ㊃四等米 一石 [illegible] / 精搗玄米 [illegible] / 一等糯白米 [illegible] / 正租 [illegible]

仁川正米

㊂三等米 [illegible] / ㊃四等米 [illegible] / 新穀米 [illegible] / 一等精白米六〇키로 [illegible] / 在來正租 [illegible] / 改良正租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格 (七日)

上 [illegible] / 中 [illegible] / 下 [illegible]

京城雜穀

大豆 [illegible] / 粟 [illegible] / 大麥 [illegible] / 小麥 [illegible]

仁川大豆

龜山大豆 [illegible] / 長湍大豆 [illegible] / 金浦大豆 [illegible] / 海州大豆 [illegible] / 天安大豆 [illegible]

商品 (八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七日)

[illegible]

大連特產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綿棉紀外價

[illegible]

鰯油冲價

[illegible]

메리야스

[illegible]

株式 (八日)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東新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氣配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米國 (八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賣買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七日)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商品 (八日)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大阪湯糸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棉花

[illegible]